학부모개입 지침서

# 가출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배주미 이창호 손재환
이주영 장혜아 허지은
박현진 이경숙 이상석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 가출 : 학부모개입 지침서 2

인　　쇄 : 2009년　12월
발　　행 : 2009년　12월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34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문화사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 발 간 사 |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따라 우리 청소년이 사는 세상도 변하고 청소년이 겪는 문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해졌고, 문제의 심각성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방문했던 내담자들의 고민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가족갈등, 학업성취, 대인관계 및 진로와 관련된 영역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중독, 가출, 비행, 학업중단, 학교폭력, 자살충동과 같은 영역에서 고민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찾아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즉,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학부모의 전통적인 양육환경 및 양육방식 또한 달라져야 하며 부모님들이 알아야 하는 양육지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 혹은 환경적 여건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 부모님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상담원에서 그 간 인터넷게임중독예방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품성계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돕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모님들이 직접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 본 상담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6개 위기

영역을 선정하고 위기영역별로 학부모님들이 참고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개입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갈등, 인터넷중독, 진로,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6개영역에서 학부모님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쉽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 다양한 관련 정보들, 기관들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점심시간 및 아침시간등 근무외 시간을 쪼개 가면서 문제영역별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이 지침서를 제작해 주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직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서가 청소년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훌륭한 부모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2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차 정 섭

## | 들어가는 말 |

자녀가 집을 나가 '가출'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단순한 당황함이상의 커다란 상처가 되고, 나아가 자신의 부모로서의 삶이 송두리째 실패였다고 느끼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자녀가 이 이전까지 매우 착하고 모범적이었건, 혹은 지속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부모님을 힘들게 해왔던 아이라 야단도 많이 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였던 아이였건, 그 자녀가 가출을 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상상을 해본적도 없었던 큰 사건일 것입니다. 어쩌면 자녀의 가출을 한번, 두 번 경험하시면서, 처음에는 친구의 꾀임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위로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으면서, 부모님들은 이제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하고 불안하고 또한 이러한 처지에 부모를 몰아넣은 자녀에게 화가 나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자녀의 가출'은  속으로 썩고만 있었던 자녀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터트리고 약을 발라 치유하게 할 수 있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녀가 가출'한 이유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을 되돌리고 싶은 그들의 몸무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은 '자녀의 가출'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작은 도움과 위안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과 함께 청소년가출에 대한 부모님들이 예방하시고 대처하실 수 있는 지침을 가출의 단계에 맞게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 스스로 읽고 응용하셔도 좋고, 청소년상담사 및 관련전문가와 상의하며 읽고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부모님들이 겪고 계시는 '자녀의 가출'이 가족의 불행이나 위기가 아닌 행복을 위한 기회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개발팀장 **배 주 미**

## 차 례


발간사 |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들어가는 말 | **배주미** 프로그램개발팀장

**제1장 청소년 가출의 특성에 대한 이해**

1. 청소년은 왜 가출 하는 걸까요? ····· 9
2. 가출청소년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 9 1
3.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2 2

**제2장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부모 지침**

1. 가출에도 경고 신호가 있나요? ····· 62
2. 자녀의 초기 가출 대응 전략 ····· 13
3.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 ····· 3 4
4.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 94
5. 자녀의 가출이 만성화되었을 때 ····· 65
6.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기 ····· 16
7. 자녀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자녀의 가출을 예방하기 ····· 6 6
8. 가출한 자녀를 찾는 방법 ····· 7
9. 가출시 이용시설 이용방법 및 정보안내 ····· 8 7

**| 참고문헌 |** ····· 86

**| 부 록 |** ····· 87

제1장

# 청소년 가출의 특성에 대한 이해

## 1. 청소년은 왜 가출 하는 걸까요?

### 1) 가출 청소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가출청소년이란 자신 및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 혹은 회피하고자 부모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2)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소년 가출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뿐아니라, 그의 가정, 학교, 또래집단, 그가 살고있는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1) 부모 및 가정 내 원인

부모와 가정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이자 환경입니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여전히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출청소년의 50% 정도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출의 원인은 "부모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청소년 간의 오랫동안의 만성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대화를 하지 않고 있거

나, 혹은 가정의 규칙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부모의 말을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에는 전혀 가정 내 질서가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고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강압적인 양육 태도

부모의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는 자녀로 하여금 혼돈을 주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문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대화방식, 가족 간의 대화 단절, 자녀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는 말투 등은 자녀가 부모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또래집단이나 자기를 돌봐줄 친구를 찾아 가출을 하도록 만듭니다.

● 가정 내 불화 및 결손

부부간의 잦은 다툼이나 불화 등으로 인한 가족 내부 갈등, 부모의 이혼, 재결합 가정, 조손가정 등은 자칫 자녀로 하여금 자신만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청소년들은 불편한 가족관계 속에서 탈출하면 심리적 정신적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나 가정폭력 경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 폭언은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하여 가출을 하게 만듭니다.

● 부모의 무관심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의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혹은 무관심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어려운 가정의 경제적 상황

가정 내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가정 내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은 부모가 경제적인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집에 거주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 환경문제와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소비를 조장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은 결국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한다는 욕구 불만과 더불어 가정보다는 밖에서의 생활에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게 하여, 청소년들을 가출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부모가 전혀 관심이 없는 가정인 경우 청소년들의 가출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또래 및 학교 요인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가 되면서 또래와 학교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만약 부모와 가정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들 청소년에게는 '제2의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더 또래에 집착을 하게 되고, 심하면 부모보다는 또래를 더욱 친밀한 가족으로 지각해 이들과 함께 지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는 이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다음은 가출에 영향을 끼치는 친구와 학교 요인입니다.

● 노는 친구들과 어울림

가출청소년들은 소위 노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노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또래 친구들과 놀다가 귀가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면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 대한 흥미 부족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학교에 가도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경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거나 지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대한 흥미를 더욱 잃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도 심화되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인관계 어려움과 학교부적응

성격이 내성적이고 소심하여 또래친구들과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어려워하거나, 무리한 전학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는 경우 혼자서 힘들어 하다가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기가출로 끝날 가능성이 많으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당하는 경우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는 절망감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출 초기에 부모나 교사 등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성적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환경과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학업성적이 떨어질 경우 부모님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친구들에 비해 혼자만 뒤쳐진다는 느낌을 받아 "나는 이정도 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의 성적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거나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할 경우 더욱 상처를 받게 되고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변 친구들의 가출에 쉽게 동조

또래친구들과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등으로 인하여 또래친구 중 한명이 가출을 한다고 할 때 함께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사회·환경적 요인

국가나 사회에 따라 청소년가출율이 높은 나라도 있고, 다소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를 비교해보면 가출에 영향을 주는 사회환경적인 원인을 알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환경적 요인입니다.

● 소비적 욕구를 자극하는 풍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상품시장의 발달은 유명 브랜드의 옷과 신발 등을 착용하거나 최신형 휴대폰을 가짐으로써 또래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결핍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옷, 신발, 게임기, 최신형 휴대폰 등)을 사달라는 요구를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때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경우 귀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요구사항이 생길 경우 가출을 또 다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

정경제가 어려워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도벽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집밖에서의 생활을 선택하여 가출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전하지 못한 성인과 유사한 청소년 놀이문화

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시설이 부족한 반면 성인놀이문화의 축소판인 상업화 된 공간(PC방, 노래방 등)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부족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문화가 전무한 현실에서, 상업적이고 자극적인 문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에서의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고 집밖에서 노는 문화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극심한 경쟁 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성적우선순위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엄청난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어떤 학교,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 등 사소한 것부터 남과 비교를 당하는 극심한 경쟁사회 속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출청소년 대응체계의 부족

가출 예방과 가출 후 미아 및 가출인 찾기, 그리고 가출 후 귀가한 청소년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합니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이다 보니 유흥업소를 출입하거나 절도 등의 위기행동으로 연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소년 권리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무대응

청소년은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에 있는 불안정하고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보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미성숙한 존재로 사회적 소외를 받기도 하며 성숙한 성인으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취급받기도 합니

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모호한 권리의 인정이 청소년 스스로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4) 청소년의 개인특성

청소년기는 '질풍노도'라 할만큼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다양한 어려움을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가출을 더 쉽게 하게 되는 청소년의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하고자 하는 청소년기 발달특성

청소년기의 특성상 부모로부터의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부모의 충고나 조언이 잔소리로 들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는 등 경제적인 독립이 쉬울 것이라는 단순한 결론을 내리고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아정체감 혼란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등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 하는 시기입니다. 성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유없는 걱정" 처럼 보이지만 이시기의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고민이라는 사실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저하

청소년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집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하나 부모나 가족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또래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면 혼자서 고민하다가 결국엔 지금 상황을 단지 벗어나려는 생각에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청소년 가출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출청소년을 가정환경, 청소년 자신의 특성, 또래관계, 가출목적, 가출의 지속성과 만성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시위형 가출

부모 혹은 가족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출을 하는 경우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적 가출입니다. 이들의 가출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언제든지 귀가가 가능하여 가출 기간이 비교적 짧은 **단기가출**이 특징입니다. 시위형 가출의 경우 귀가 후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경우 또 다른 요구사항이 발생했을 시 재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출 유형입니다.

**시위형 가출청소년의 사례 ❶**

소녀시대의 태연이 같은 걸그룹의 멤버가 되고 싶은 주미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수는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외모나 재능이 안 된다며 무조건 공부를 하라고 하는 부모님과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주미는 부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수가 되도록 음악학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절대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 탐험형 가출

가족 내부의 갈등보다는 학교나 가정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자신의 성장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즉 자기완성을 추구하기 위한 실존적 가출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은 가출 기간이 비교적 짧아 **단기가출**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탐험형 가출청소년의 사례 ❷**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혜아는 편의점, 주유소 등을 돌아다니며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 답답하여 유약한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3) 유희추구형 가출

가정 내 갈등이 주된 원인이라기보다는 유희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경우이며, 개인적인 가출보다는 또래들과의 집단적으로 가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출하는 경향보다는 **단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희추구형 가출청소년의 사례 ❸**

지은이는 시험이 끝나고 신나는 기분에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며 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보니 부모님과 약속한 귀가시간인 9시가 훌쩍 넘어가 12시가 되었고 부모님께 혼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단짝 친구인 현진이네 집에서 하루 같이 자면서 더 놀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4) 도피형 가출

- 부모의 과도한 통제나 기대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일시적 도피행위로서의 가출을 의미합니다. 비교적 단기간일 가능성이 높지만 가정 내 분위기가 자녀의 귀가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피형 가출청소년의 사례 ❹**

학교에 등하교 할 때, 그리고 학원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어머니의 차로 이동하는 상석이는 모든 생활에 있어 사사건건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후면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이번에는 꼭 전교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상석이는 너무 부담스럽고 부모님의 기대에 실망을 시켜드릴까 두렵기도 하여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5) 탈출형 가출

가정 내 폭력을 피하기 위한 가출을 의미하며, 이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가족에 대한 적대감정이 많습니다. 즉 부모의 알콜중독, 양부모의 학대 등 신체적·심리적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출로 가정의 심리적 지원체제가 붕괴된 경우 자신의 보호를 위해 가출(탈출)하는 유형입니다.

**탈출형 가출청소년의 사례 ❺**

주영이의 부모님은 주영이가 초등학교 때 재혼을 했으며, 그 이후 조그마한 일에도 부모님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며 어린 동생과 함께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술을 드시고 들오시면 이유 없이 어머니와 자신을 때리기도 하고 심하게 욕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아버지의 폭력을 참다못해 어린 동생이 맘에 걸리기는 하지만 집을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외에 만성적 가출 유형으로는 자아상실형 가출과 버려진 가출 등이 있습니다.

## 2. 가출청소년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청소년기에 가출을 시작하고, 특히 이후의 빈번하고 만성적인 가출로 이어지는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특징을 흔히 나타내는지, 이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들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중 어떤 특성은 그들이 기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징도 있으나, 또한 많은 특징들은 빈번한 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 부모에 대한 증오와 연민

가출청소년들은 가족, 특히 부모에 대해서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섞인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무기력감

무기력감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청소년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시도가 반복적으로 좌절을 겪게 되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낮은 자존감

가출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낮은 자존감은 청소년 자신과, 청소년을 대하는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무기력과 의욕의 상실을 낳고 자신에게 애정을 주는 상대에게 조차 불신을 가지게 합니다.

● 일상생활 적응의 어려움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하면서 학업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멀어지므로

정상적인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 분노조절의 어려움

가출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분노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에 있어 갈등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 관심끌기 행동

끊임없이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 비행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기를 호소합니다.

● 인내력 부족

가출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인내력과 의지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압박과 규칙에 대해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 형제자매에 대한 애착

가출청소년들은 형제자매, 특히 동생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혈육인 형제자매는 유일하게 의지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입니다.

● 생존/자립에 대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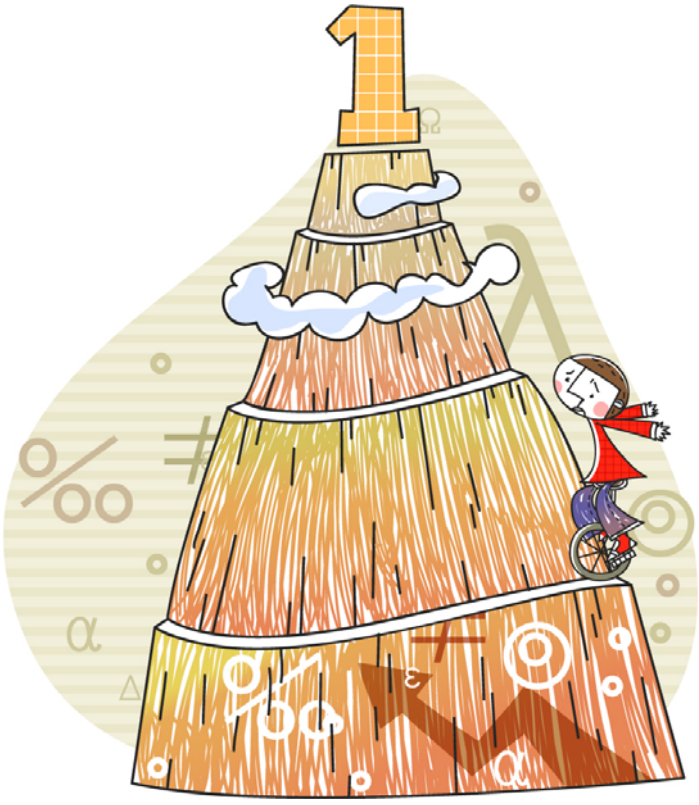
가출청소년들은 먹고 자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자립에 대한 강한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

가출을 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예민하여 타인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기도 합니다.

● 성인에 대한 불신

부모에 대한 증오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성인의 관심과 접근에 대해 순수한 관심과 애정의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3.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불완전한 환경 아래 범죄와 위기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가출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이유가 뭐니?'라고 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은 가출 후 어떻게 지냈어?'라고 묻는 것 입니다.

● 정상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기회를 잃게 됩니다.

가출로 인한 오랜 거리 생활은 신체적·정서적 건강문제 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기회를 상실하게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잠잘 곳이 없을 때(31.6%)'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18.4%)'로 조사되어 절반정도가 의식주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식사와 비위생적인 잠자리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건강은 성인기와 그 이후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거리생활을 하면서 위생과 영양상태가 나빠져 영양결핍이나 피부병 등 신체적 질병을 앓기도 하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임신과 낙태, 성매매 피해, 성관련 질환 감염 등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관련 서비스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출 전 이미 가정에서 학대, 방임, 폭력 등 힘든 경험을 했던 청소년들은 또다시 거리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부딪치면서 더 심각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가출청소년의 자살사고율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자살

시도율은 5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출청소년들은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절망감, 심각한 우울과 같은 많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교육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청소년은 누구나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관련 문제를 갖고 있으며, 첫 가출을 시도하기 전에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거리생활이 장기화되면서, 학업으로부터 점점 이탈하게 되어 취업이나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주고 성인으로 자립하거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시간제 노동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출청소년은 신분 확인과 보호자 동의서 요구 등의 제약으로 인해 취업기회를 갖는 것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가출청소년은 부모에게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과정을 피하게 되고, 결국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나이가 어려서 일을 할 수 없거나 할 수 있는 일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에서 가출청소년은 부당하게 이용당할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청소년의 가출 상황을 악용하여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당장 숙식이 필요한 매우 긴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기 쉬우며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모른 채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당하게 됩니다.

● 쉽게 비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청소년은 가출을 전후로 하여 자연스럽게 비행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비행문화에 합류하게 됩니다. 가출이 장기화될 경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각종 문제에 연루되어 유해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전후의 문제행동경험을 조사한 결과 폭행, 절도, 성인 유흥업소 출입, 이성과의 혼숙, 성관계, 흡연, 술 등 대부분의 비행이 가출 전보다 가출 후 증가했으며, 특히 가출빈도가 높을수록 비행횟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비행 유형들이 다른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학습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출 후 또래를 통해 거리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비행 방식을 습득하면서 범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흔히 가출청소년은 거리에서 폭력, 절도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인식되곤 하지만, 이들도 거리에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폭력에 노출된 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범죄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출청소년은 이들을 보호하거나 옹호하는 가족, 학교 등의 체계에 속하지 않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가출 청소년은 많은 시간을 거리에서 배회하며 지내는데, 거리라는 장소는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셋째, 가출청소년이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는 잘 알려진 사실 때문에 거리에서 더욱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출청소년은 가해자이기 이전에 광범위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분명한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 사회에서 쉽게 배척당합니다.

가출청소년은 주어진 사회구조 내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에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히곤 합니다. 한 두 명의 타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가 자신을 불공정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인식하면서, 청소년은 '기대된 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며 점점 더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 가치 없는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가출청소년은 거리에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비행에 관여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경찰을 피하려고 하거나 성인이나, 공적기관에 대해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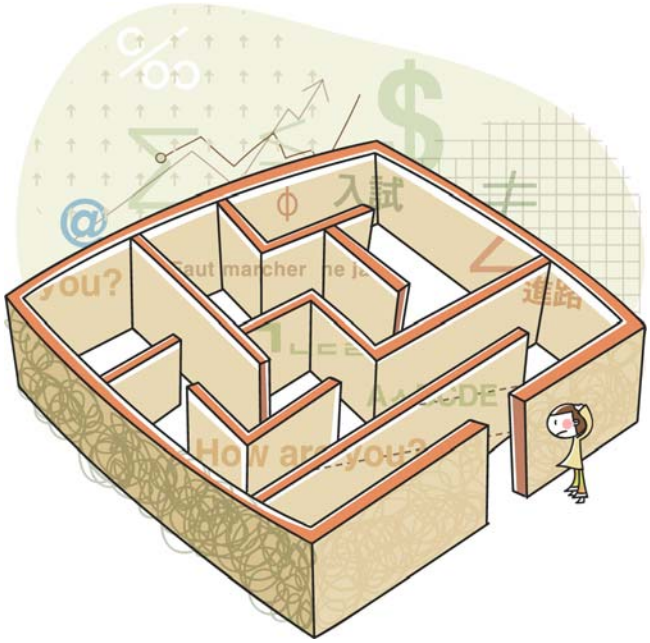
가출청소년의 문제는 가족과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는 데서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오히려 희생자인 청소년들을 비난하기만 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출청소년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원활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장

#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부모 지침

## 1. 가출에도 경고 신호가 있나요?

청소년이 일단 가출을 하게 되면 앞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출을 하기 전에 자녀의 어려움을 감지하여 가출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가출하고 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고, 한 번의 가출은 또 다른 가출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가출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이들이 무엇을 원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 자녀의 가출을 경고하는 몇 가지 신호

**자녀의 가출에 대한 몇 가지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 **행동과 습관, 태도에 변화가 옵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과도하게 먹거나, 잠을 하루 종일 자거나, 잠을 자지 않거나,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거나, 방안에서 나오지 않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자녀는 집에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 **반항 행동이 시작됩니다.**
  성적 하락, 무단결석, 규칙 위반, 가족과의 시비는 문제행동의 증상입니다.

- **가출 의도를 드러냅니다.**
  어떤 자녀들은 가출에 대한 힌트를 주기도 하고 가출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나 학교, 다른 아이 부모들로부터 가출 생각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 **돈과 물건을 챙깁니다.**
  가출은 돈과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출에 필요한 현금을 천천히 마련하기도 합니다. 짐 가방이나 옷 가방을 싸는 것은 언제라도 신속하게 집을 나가겠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 **이럴 때 부모님은 '바로 의심을 풀 수 있게 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최근 변화된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이 가출로 이어질 것 같다는 부모의 불안을 자녀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힘들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한 스트레스를 건전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간 대화를 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가출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 ◉ 우리 자녀도 혹시? - 자녀 가출 체크리스트

☆ 아래에 제시된 행동들은 가출하기 전에 자녀들이 흔히 보이는 신호들입니다. 영역별로 체크(✓)해 보세요.

### ❑ 가정영역

| | |
|---|---|
| · 부모와 대화가 점점 줄어든다. | |
| · 집에 있는 것이 따분하다고 짜증을 자주 부린다. | |
| · 부모와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호소를 한다. | |
| · 자기 방문을 자주 잠근다. | |
| · 부모와 사소한 것에 말다툼을 자주 한다. | |
| ·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툭하면 집 나가겠다고 위협한다. | |
| ·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집이 싫다는 말을 자주 한다. | |
| ✓표 개수 | 개 |

### ❑ 학교영역

| | |
|---|---|
| · 학교선생님들과 말다툼을 자주 한다. | |
| · 학교를 자주 빠진다. | |
| ·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 | |
| ·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학교는 그냥 형식적으로 다닌다. | |
| ·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
| · 입시체계나 획일화된 교육체계에 대한 비난을 많이 한다. | |
| ·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하고 왕따 등의 문제로 시달린다. | |
| ✓표 개수 | 개 |

### ❑ 또래영역

| | |
|---|---|
| · 사귀는 친구들이 주로 노는 아이들이 많고 중퇴·자퇴했거나 가출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 |
| · 이성관계가 복잡하다. | |
| · 가출한 친구들의 이야기에 쉽게 동조한다. | |
| · 학교를 그만 둔 친구들이 많다 | |
| · 친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친구 부모가 자주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 |
| · 밤늦은 시간에 친구들이 전화해서 불러내면 핑계를 대서라도 꼭 나 가려한다. | |
| · 가정환경이 불우한 친구들과 자주 어울린다. | |
| ✓표 개수 | 개 |

### ❑ 개인영역

| | |
|---|---|
| ·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가끔 외박도 한다. | |
| · 늦게 귀가하여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얼버무리거나 거짓으로 말한다. | |
| ·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다. | |
| ·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여자청소년의 경우 화장을 하기 시작한다. | |
| · 친구의 돈을 빼앗고 오토바이 등을 훔친다. | |
| · 부쩍 필요 이상의 용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 |
| · 집을 떠나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다. | |
| ✓표 개수 | 개 |

### ❑ 사회영역

| | |
|---|---|
| · 방과 후 PC방, 비디오방, 게임방, 당구장 등의 출입이 잦다. | |
| · 방과 후 학원이나 독서실에 간다고 해서 확인해 보면 없는 경우가 많다. | |
| · 쉽게 돈을 벌 궁리를 하면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한다. | |
| · 대중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좋아하고 따라하려고 한다. | |
| ·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한다. | |
| · 밖에 나가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고 들어온다. | |
| · 최신유행에 민감하며, 최신 유행 물건을 사고 싶어한다. | |
| ✓표 개수 | 개 |

☆ 체크한 개수를 적어보세요.

가정영역 (  )  학교영역 (  )  또래영역 (  )

개인영역 (  )  사회영역 (  )

☆ 어느 영역이 가장 많이 체크되었나요?

특정 영역에서 총점이 높게 나왔다면, 그 영역에 대한 가출예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몇 개의 사항에 체크 하셨습니까?

체크가 많이 되었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가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문항에 체크가 되었다면 당신 자녀가 가출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 2. 자녀의 초기 가출 대응 전략

### 1) 초기 가출 시의 부모와 청소년의 경험

**경숙이 엄마 이야기 ❶ '우리 딸 경숙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경숙이가 집을 나가서 이틀째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경숙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쁘고 착한 모범생이었는데, 중학교에 입학 후 많이 변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가 힘들고 재미없다는 말을 했었는데…그래도 학교는 다녀야된다고 윽박지르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친구들하고 노는 맛에 잘 다니나 했더니, 지난주 학교에서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다며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경숙이 아빠는 중학교에 입학 후 친구들과 놀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공부는 거의 손을 놓고 사는 경숙이를 늘 못마땅해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12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일이 2~3회 반복되자 욱하는 성격에 아이에게 손찌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이는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집은 왜 다른 집처럼 돈도 없어? 애들은 다 최신형 핸드폰가지고 다니는 데 나만 후진 핸드폰이라고!!! 정말 짜증나!"라며 철없이 바득바득 대들다가 크게 맞아 얼굴에 멍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사업이 안 되어 손을 놓고 있는 경숙이 아빠는 이 모든 일이 아이를 잘못 키운 "내 탓"이라며 나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어 부부 싸움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를 가보니 아이가 그동안 불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결석도 2~3번 했고, 수업을 빼먹고 노래방을 다니기도 하고, 오늘도 담배를 피우다 걸려 집에 연락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전화를 경숙이 아빠가 받게 되어 같이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심한 이야기를 들은 경숙이 아빠는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었는데, 아빠 성격을 아는 아이는 아침부터 긴장을 하더니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1) 자녀의 첫 가출 시의 부모의 감정

그동안 착하고 어리게만 여겼던 자녀가 가출을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심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가 왜 가출을 했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등 가출 이유와 상황을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합니다. 자녀의 첫 가출 시의 부모는 다음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혼자만 이런 문제를 겪고, 홀로 투쟁하는 느낌

대부분의 다른 부모들은 '자녀가 가출하는' 경험을 겪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부모들과 상의를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운데 비판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가출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 문제는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

맨 처음 자녀가 가출을 했을 때 부모들은 매우 당황스럽고, 자녀에게 혹시 나쁜 일(폭력, 유괴 등)을 당하거나, 나쁜 아이들의 꼬임에 넘어가 끌려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는 특히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더 심각해지며, 자녀를 찾을 방법이 없다거나 자녀를 구해낼 수 없다는 느낌으로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 실패했다는 느낌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과의 갈등과 싸움 끝에 집을 나가는 경우, 자신(부모)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부모로서 자신의 문제를 반복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패한 부모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 수치감

자녀가 가출하여 어디 있는지 알기위해 자녀의 친구, 사회서비스 기관, 경

찰서 등에 전화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부모가 가장 많이 느끼게 되는 감정은 수치감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양육방식이나 가족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충고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러한 충고나 조언은 친한 사람보다 공식적인 기관의 전문가로부터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흉본다고 느낌

자녀의 가출로 인해 부모는 심한 당혹감을 느끼는데, 이는 자녀가 가출했다는 것이 "가족 내부의 갈등이 심각하여 같이 지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족이나 친구 이외의 타인에게 도움 받는 것을 거부하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즉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 과거를 그리워하며 슬퍼함

부모들은 자녀가 집을 나간 것을 슬퍼하며, 자녀가 자신을 따르던 어린 시절로 다시 되돌아갔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녀의 가출은 단지 집에 없는 것 이상의 것으로 희망과 기대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지? 내가 더 이상 할 것은 없어. 나는 포기하겠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하룻밤 사이에 손상된 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에 회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상당한 노력과 시간만이 깨어진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 분노와 좌절감

부모들은 스스로에 대해 화가 날 수 있으며, 때로는 가출한 자녀에 대해 매우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몰라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언제 들어오는지 두고 보자”, 혹은 “누가 이기나 보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등의 감정들로 인해 경찰서나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등의 기관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 (2) 자녀가 반복 가출했을 때의 부모의 감정

● 이전보다는 차분해집니다.

이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처음 겪었을 때와 같은 두려움과 걱정은 줄어들고, 부모가 항상 자녀를 보호하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 부모는 더 무기력해지고 좌절감이 커집니다.

자녀가 또 다시 가출을 하고, 며칠 후 잘 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또 몇 주가 지난 후 자녀는 집에 와서, 돈이 떨어졌고 피곤하며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들어오게 해 자게하며, 밥을 먹게 하지만, 자녀는 하루 이틀 집에서 지낸 후 다시 집을 나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상황은 몇 달 동안 자녀의 소식을 알지 못하게 되다가, 경찰서에서 절도나 약물, 폭력 등의 문제로 연락이 오는 경우입니다. 결국 사법기관으로부터 자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가출은 오히려 신체적 상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의 가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감정, 즉 무기력감과 슬픔이 부모에게 남게 되며, 부모가 자녀를 설득하거나, 돈과 시간의 문제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하고자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좌절감은 더욱 커집니다.

## 2) 부모의 효과적인 대처전략은 무엇일까요?

● 차분함을 유지하세요.

자녀를 돕기 위해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비록 두렵거나 걱정이 되더라도 자녀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도록 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지를 먼저 잘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가 가출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것이 단기가출일지라도 가출에 대한 정보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집을 나갔을 때에는 집 근처에 있는 친구나 선배 등 아는 사람의 집이나 여관 등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가출청소년이라도 쉼터에 가는 청소년보다는 거리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 부모 자신을 돌보아야만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사를 하지 않는 등 자신을 학대하는 행동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가출을 하였더라도 부모 자신과 함께 다른 가족들 또한 의식주 및 일상생활 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모가 자신을 스스로 돌보아야만 도와 줄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겠지만 굶거나 잠을 안자는 것보다는, 식사도 하시고 충분한 잠을 자는 등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찾거나 혹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잠깐만! 부모 자신을 돌보기 위한 tip

부모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TV보기, 책읽기, 뜨개질, 요리나 운동 등은 가출한 자녀를 찾거나 기다리는 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또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부담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한 방법은?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한 방법들은 많이 있지만 막상 가출한 자녀를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연락해야할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한 방법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가족들의 욕구와 기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방법도 다릅니다. 특히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의견도 매우 다를 것입니다. 만약 지역사회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국번 없이 1388**로 전화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에 따라 경찰과 연계하여 자녀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 잠깐만! 가출한 자녀를 찾기 위한 tip

① 직접 찾는 방법 : 해당 지역의 일시보호소(국번 없이1388)나 가출청소년쉼터로 전화하여 자녀의 입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핸드폰 위치 추적 : 단순 가출의 경우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으며, 만약 부모 명의나 형제의 명의로 된 핸드폰을 가지고 가출했을 경우 해당 명의자가 이동통신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핸드폰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다.
③ 국번 없이 182(경찰청)나 실종아동찾기센터(www.182.go.kr)로 가출신고 : 가출청소년이 경찰에 의해 발견될 경우 신원조회를 통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합니다.

● 자녀가 보호관찰 중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자녀가 이미 보호관찰기간 중이라면,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보호관찰관과 지키기로 한 규칙을 어길 경우 경고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인 자녀를 둔 부모는 사법체계로부터 더욱 엄격히 자녀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가출을 보호관찰관에게 연락 할 경우 부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신뢰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잠깐만! 보호관찰 청소년 관련 법규 tip

자녀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가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 이탈로 인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 점과 사법체계로부터 더욱 엄격히 자녀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부여받은 보호자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담당 보호관찰관과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행방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의무출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명수배와 같은 새로운 처벌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보호관찰기간 중에는 되도록 가출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자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봅니다.

자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혹시라도 자녀가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지, 혼자 가출을 했는지, 최소한 잘 지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화나 만남을 통해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보게 될 경우 친구나 그들의 부모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인식 시켜 주고, 친구들이 가출한 자녀가 귀가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하거나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 " 잠깐만! 자녀의 친구들에게 연락할 때의 tip "

자녀의 가출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굳이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가출이 학교 결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와 친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① 자녀의 가출사실을 알지 못하는 친구와 통화할 때 :
○○야~ 우리 경숙이 핸드폰이 연결 안 되는 데 혹시 같이 있니? 하며 안부를 확인합니다.

② 자녀의 가출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와 통화할 때 :
○○야~ 혹시 우리 경숙이랑 같이 있니? 우리 경숙이한테 연락 오면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줘~ 하며 친구를 통해 자녀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 가출은 하였지만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자녀가 가출 중에도 학교는 다닌다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와 신뢰관계가 있다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교실 밖이나 학교 근처에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비록 자녀가 가족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출을 하였지만 자신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를 잃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좋은 신호로 개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 잠깐만!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는 자녀를 대하는 tip

학교 앞에서 자녀를 기다린 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때 자녀의 안부를 물어 걱정하고 있음을 알리고, 자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또한 자녀에게 약간의 용돈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책임감이 강한 자녀일 경우 가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귀가의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열린 마음으로 자녀와 대화를 충분히 하는 등 더욱 신중하게 개입하여야 합니다.

● 가출 후 일(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비록 자녀가 학교에 계속 다니지 않더라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좋은 신호입니다. 이 경우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도록 격려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자녀가 일하는 곳의 윗사람이나 동료에게 자녀가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는 않는 지 등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을 통해 집에 전화를 해달라는 메시지를 자녀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에게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잠깐만! 일 하는 자녀를 대하는 tip

자녀의 직장상사와 통화할 때는 평상시와 같이 인사말 정도만 건넨 후, 자녀를 바꿔달라고 해서 자녀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녀에게 이메일과 휴대폰의 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 쪽지 기능 등)를 보내봅시다.

이메일과 휴대폰의 메시지를 활용하여 연락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고 있고, 잘 지내는지 등의 안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게 되면, 비록 응답을 하지는 않아도 부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귀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 잠깐만! 가출한 자녀에게 연락을 취할 때의 tip

자녀가 가출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부를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며, 언제나 자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 모든 방법이 소용없다는 무력감이 느껴질 때

경찰 등 관련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친구나 직장, 학교에 연락을 했음에도 자녀를 찾을 수 없다면, 부모는 아마도 심각한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집에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데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기관의 전문가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잠깐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의 tip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지기 위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지금 막막한 것은 방법을 몰라서 일뿐, 모든 것이 실패하거나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수학문제를 풀다 못 풀 때 수학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듯, 자녀의 문제도 때로는 전문가를 찾아 상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나은 길입니다.

●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를 드러내고 실패한 부모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하시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기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해결방법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자치 기관들이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까운 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실 경우 국번 없이 **'1388'**로 전화 하세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부록참조)

### 잠깐만! 외부기관에 도움 요청할 때의 tip

청소년 전화 1388에 전화하여 지역의 일시보호소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자녀가 입소했는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지역 내 청소년쉼터에도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상담원에게 자녀의 가출문제를 상담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 자녀를 꼭 찾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하여 자녀가 1388 혹은 청소년쉼터에 연락을 해 오거나 입소할 때 기관에서 보호자에게 연락 가능하도록 합니다.

## 가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지침 〈1〉

###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만들기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자녀의 연령과 관심에 맞는 활동을 함께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 기초가 되는 애정과 신뢰는 자녀와 함께 보낸 시간과 비례합니다. 자녀와 함께 식사를 많이 합니다. 식사시간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친밀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위한 시간을 보내도록 합니다. 함께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인터넷 서핑을 합니다. 또는 가족 단위의 운동이나 여행 등 여가 활동을 함께 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자녀가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자신감은 타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잘 마무리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긍정적인 점을 부각시키고 자녀가 잘한 일은 강조하여 한 번 더 이야기 해 줍니다. 자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조건 비판하기 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좋은 행동을 강화하고 부족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부모 자녀간의 애정과 존중 그리고 신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자녀가 즐겁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합니다.**

자녀가 자신의 강점, 재능, 관심을 발견하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청소년 모임이나 미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자녀들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래나 성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해야 할 일〉

- 옳고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 칭찬과 보상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나부터 그렇게 해야 합니다.
- 규칙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부모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한다는 것을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기분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이러한 관심어린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경청법을 활용합니다. 말 속에 숨어있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녀의 말을 부모의 말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 자녀가 부모가 필요하다고 할 때 자녀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 자녀가 멋지게 보이고자 노력했거나 외모에 자신있어할 때 칭찬합니다.

### 〈하지 말아야 할 일〉

- 자녀가 잘못한 일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가며 비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자녀가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 해낼 때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 합니다. 정직을 가르치고자 하면서 “지금 전화한 사람이 ○○이면 나는 없다고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 부모는 자신이 세운 규칙에 대해 자주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 태도에 있어 부와 모가 합의하여 부모 모두 동일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와 모의 규칙이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면 자녀는 쉽게 부모를 조종(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 실수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실수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부모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쉽게 따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녀가 무책임에 대해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 3.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

**경숙이 엄마 이야기 ❷**

**'경숙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발 집으로 들어와라'라는 문자를 여러 번 아이에게 보냈습니다. 아이는 분명 핸드폰은 가지고 있고 문자도 확인하는 모양인데, 전화를 하면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잔뜩 화가 난 아이 아빠를 설득해 '용서해 줄테니, 집으로 들어와라'라는 문자를 남기게 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경숙이 아빠는 너무 화가 나서 딸 하나 없는 셈 치고 살겠다고 하며,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딸 단속 못해서 그렇다고 계속 나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이틀이 지나고도 아이가 답이 없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의 집에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친구엄마들에게 슬쩍 아이가 그 집에 있나 동태를 살피려고 했는데, 이 엄마들이 '경숙이가 참하고 모범생인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애들 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위로를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는데, 그 말에 자존심도 상하고 괜히 잘못된 소문만 내는 것 같아 마음이 더 힘듭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아이의 친구를 통해 알아낸 혼자 산다는 선배네 집에 가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는 나를 빤히 보더니 '나 안가, 거지같은 집에 다시는 안 갈거란 말이야. 딸 하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서워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출이 지속되면서 부모는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찾아낸 자녀가 돌아오기를 거부할 때, 부모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지게 되고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 1) 부모와 청소년의 감정

#### (1) 부모가 느끼는 감정

● 좌절감과 분노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심한 좌절은 분노로 표현되며, '집으로 오라고 해도 오려고 하지 않다니!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상처와 공포감

부모는 또한 심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절로 인해 버림받고 거부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두려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하는 자괴감도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 (2) 귀가하지 않으려는 청소년의 청소년 감정과 경험

청소년들이 귀가를 하지 않는 것에는 몇 가지 감정적 요소가 작용합니다. 이러한 감정에는 분노감, 흥분, 수치심, 자만심, 죄책감 및 공포심이 작용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와 죄책감이 혼합된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심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 이상의 학대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밖에서 살아갈 대책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용 받을 수 있는 의사소통을 원할 것입니다.

### 2) 귀가하지 않으려는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대처 전략

● 단계 1. 부모의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염려하고 있음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할 때는 부모가 먼저 염려하는 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잠깐만! 걱정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부모대화법 tip

- 아이를 비난하고 야단치고 싶은 마음을 이깁니다.
- 가출 중 의식주 및 어려웠던 문제에 대한 염려를 드러냅니다.

예:"너를 찾게 되어서 엄마는 너무 반갑구나."
"우리는 네가 밖에서 어떻게 지내는지가 많이 걱정되는구나."
"밥은 굶지 않았니?"
"어디 아프지는 않았니?"
"나쁜 일을 당하지는 않았니?"등등

● 단계 2. 대화를 시도합니다.

복잡한 마음상태를 지닌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대화를 흔히 거부하더라도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위형의 청소년들로서 자신의 요구가 명확한 경우 이를 위해 타협에 응할 수도 있고, 일시적 유희추구형 가출인 경우 가출로 인한 심한 처벌이 없음을 확인하면 귀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흔히 불안하고, 수치스러운 마음, 자신의 생각이 흔들리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도 진심을 다해 대화를 시도해봅니다.

### 잠깐만! 자녀와의 대화 tip

**경청의 5단계**

1단계 : 말하고 있는 사람을 관심어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2단계 : 조용하게 앉아서 끝까지 듣습니다.
3단계 : 들은 내용을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4단계 :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5단계 :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되묻습니다.

**바람직한 경청 태도**

- 팔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마주 앉습니다.
- 자세는 상대 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편안하며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여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온화하고 부드러운 시선을 보냅니다.
- 잘 듣고 있다는 표시로 가끔 고개를 끄덕입니다.
- 말을 들으며 간단한 언어반응을 합니다.
  ( 아, 그래?  그랬니?  그랬구나!  등)
- 말을 중간에 자르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말을 자기가 이해한 말로 요약하여 다시 말합니다.

● 단계 3. 귀가를 권유합니다.

자녀가 부모와의 갈등으로 아무리 집이 싫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집의 익숙함과 편안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들어오지 않겠다고 고집하더라도 일단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해결하자고 '귀가를 종용'하고 '권유' 해보세요. 많은 청소년들이 못이기는 척하며 들어오기도 합니다.

● 단계 4. 다른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으로 타협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네가 안전하게 지내는지가 걱정이 되는구나. 우리가 합의가 될 때까지 이모집에 가서 있으면 어떨까?" 등으로 염려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 가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지침 〈2〉

### 자녀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부모양육 태도

**• 부모는 자녀에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규칙을 정했으면 그 규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자녀가 투덜대거나 짜증을 부린다고 해도 안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환경이나 대화 주제를 바꿔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지금 부모는 자녀에게 화내지 않고 합리적인 규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일단 세운 계획은 끝까지 수행합니다.**

훈육에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기분에 따라 행동이나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규칙을 진지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대로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설명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원하는 행동을 설명할 때는 매우 명확하게 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자녀가 추측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행동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의 시간과 관심, 칭찬, 그리고 존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부모가 알아야 합니다.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긍정적인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이는 문제를 일으켜 부정적인 관심을 끌려고 할 것입니다.

**• 참을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참을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양육은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 조심스럽게 말하고 경청합니다.**

말하기보다는 경청합니다. 눈으로 자녀를 바라봄과 동시에 온 마음을 기울입니다.

자녀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충분히 이해받았다고 느낄 때, 부모의 말에 더 귀기울이고 내용을 존중하려고 할 것입니다.

- **자녀들은 아이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통해 자녀들은 배웁니다. 자녀들이 실수를 하였을 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있음을 알리는 방법

자녀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자신을 항상 사랑하고 자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자신의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녀와 나누세요**

부모가 10대였을 때 경험했던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부모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줍니다. 자녀에게 부모 스스로 내렸던 어려운 결정들을 이해시키고 자녀를 지지해줍니다.

- **자녀와 함께 있어주려고 노력하세요**

자녀의 일과나 다른 관심사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감정을 개방하도록 합니다. 그 선생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니? , 혹은 그 영화 어떻게 생각하니? 등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도 실수했음을 인정하세요**

가장 정직한 배움의 하나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간적인 것이며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부모가 실수를 하였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것은 자녀가 잘못에 대해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 4. 자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경숙이 엄마 이야기 ❸ '경숙이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걱정은 되었으나 아이의 태도가 워낙 단호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닷새 후에 아이가 머물던 선배집이라는 곳에 갔더니, 자세한 사연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여기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라고 말합니다. 아이 선배의 태도를 보니 좋게 간 것 같지는 않고 무슨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으면 집으로 돌아올만 한데 어디로 간 건지…. 결국은 10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며칠 굶은 아이처럼 밥을 잔뜩 먹고 샤워를 하더니, 계속 잠만 잡니다. 학교에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해두었지만 어찌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경숙이 아빠도 잔뜩 화가 나기는 했지만, 아이 걱정이 되기는 하는지 아무런 말도 안하고 눈치만 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잠을 자거나 방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 것이 벌써 3일째입니다. 도대체 그동안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모로서 내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1) 부모와 청소년의 감정과 경험

### (1) 부모가 경험하는 감정

● 안도감과 행복감

자녀가 가출에서 돌아온 초기에는 아이를 다시 찾았다는 안도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 뭔가 나아져야겠다는 결심

다시 완전한 가족으로 돌아왔다는 희망과 함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달라져야한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 염려와 짜증

부모는 몇 가지 염려로 인해 짜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족은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아이는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 아이는 나를 미워하거나 그저 살 데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닌가?' 즉, 이러한 흥분, 행복감, 염려와 희망이 뒤섞여 부모는 혼란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 (2) 자녀가 경험하는 감정

● 안도감과 감사함

자녀의 감정은 가출기간 동안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 가출동안 많이 배고프고 힘든 일들을 겪었다면 집으로 돌아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안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특히 감사하게 생각하여 사근사근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 죄책감과 수치감

비록 자녀가 별로 변화가 없고 화가 난 채로 귀가를 했더라도 이러한 모습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감정은 죄책감이나 수치감 등을 포장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 부모도 변화하기를 바라는 희망, 분노감, 무력감

자녀는 자신의 염려하고 귀가를 권유하던 부모를 떠올리며 부모가 달라졌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귀가 후 또 다시 부모의 이전과 같은 대화단절, 권위적 태도 등이 지속된다면 자녀는 뭔가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분노감과 함께 앞으로도 부모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 2) 이 시기의 부모의 대처 전략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다음의 조언들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언은 일반적으로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언 1. 자녀가 집으로 귀가를 한 후 당분간 불편한 대화주제는 피하도록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출하게 되었던 문제, 가출기간 동안 있었던 곳, 그동안 있었던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하겠지만 이러한 대화는 당분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아온 즉시 이러한 화제를 다루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다시 집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경과한 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자 할 때는 부모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문제 해결적 접근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 **조언 2. 가능하다면 서로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세요.**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같은 공간에서 편안히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를 피한다면 부모가 먼저 접근을 해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TV를 보고 있으면, 같이 앉아 TV를 보세요. 자녀가 부엌에서 간식을 앉아 먹고 있다면, 같이 앉아 신문을 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됩니다. 같이 앉아 있다고 해서 그리 나쁜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있음으로써 자녀를 돌보며,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자녀가 금방 부모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아마 부모가 옆에 앉으면 벌떡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냥 가도록 두세요. 자녀의 상처가 너무 커서 아직은 가까이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주고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지 마세요.

● **조언 3. 만약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서로 따뜻한 대화를 하세요.**

만약 이야기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 하세요.

● **조언 4. 만약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당신을 자녀가 무시하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는 반드시 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과 불쾌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정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결과는 훌륭할 것입니다.

● **조언 5. 상황이 안정되고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면, 이제 가출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가출을 했었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마술처럼 그냥 해결되거나 사라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출기간에 있었던 문제 또한 다루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네가 가출해 있는 동안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몰라. 그래서 네가 다시 집을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동안 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가능하다면 “네가 집을 나가기 전에 가장 화났던 게 뭐였니?”와 같이 덜 방어적이 될 수 있는 개방형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평정을 유지하고 악순환을 끊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대화는 서로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정보를 주고받는 대화’여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집을 나가게 한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려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를 자녀에게 화를 내고

이를 자녀는 반항적으로 대들다 손찌검을 당한 뒤, 자녀가 가출을 하였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아이가 13~14살이라면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17~18살이라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출의 이유가 자녀의 실패에 대한 실망 때문인지, 부모의 계속되는 체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부모의 손찌검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를 이야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조언 6. 외부체계의 지지자원을 평가하세요.**

부모의 친구, 자녀의 친구, 전문기관, 친척 등 외부의 지지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도록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비난받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아 매우 힘든 일이지만, 결국 제3자의 지원과 개입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객관화시키고 감정적이기보다는 문제해결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빠른 길입니다. 마땅히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국번없이 '청소년전화 1388'로 전화를 하세요.

## 가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지침 〈3〉

### 자녀와의 시간을 즐기세요!

최근에 당신의 자녀와 함께 즐겨본 적은 언제였나요?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 잠깐의 기회를 가져 보세요. 당신과 자녀 모두 즐거운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벗어 버리고 자녀와 가장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 내가 즐거운 일을 자녀와 함께 하세요.**

아이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부모님들도 상당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꼭 아이를 위한 일을 하려고 하지마시고, 부모님이 즐거운 일, 혹은 어차피 해야 할 일을 즐겁게 같이 하세요. 시장을 같이 가셔서 즐겁게 순대와 떡볶이로 즐거운 간식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대형마트 시식코너를 같이 순례할 수도 있겠네요. 부모님이 영화를 좋아하시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신다면 더 좋겠네요.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감시하고, 야단치는 시간이 아니라 같이 즐기는 시간을 늘리는 일입니다.

**• 같이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은 일상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덜어 줍니다. 자전거, 조깅, 공놀이 등 자녀와 함께 팀 운동을 해보세요. 경쟁에서 벗어나서 승리에 대한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팀웍을 이뤄보세요.

**• 같이 울고, 웃으세요.**

같이 주말의 개그코너를 보거나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거나 노래방에 가보세요. 마이크를 자녀에게 건네고 부모 세대의 오래된 춤을 가르쳐 보세요. 오늘 같이 본 개그코너에서 배운 농담을 나누어 보세요.

**• 요리를 해보세요.**

누구나 손수 만든 음식을 좋아합니다. 자녀와 같이 음식을 차려 보세요. 이때는 어렵지 않은 쉬운 일품요리가 적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만든 간단한 카레라이스나 김치볶음밥 어떠세요?

**• 부모–자녀 시간 계획을 세우세요.**

부모 자녀가 함께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딱딱한 모임도, 서로

평가하는 모임도 아닌 친근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 잘 들어 주고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 **자주 편지를 보내주세요.**

생일에만 카드나 편지를 보내지 마세요. 자녀가 자랑스럽게 느껴진 날뿐아니라, 날씨가 추워서 학교 가는 뒷모습이 안스러운 날, 어떤 날이건 부모의 마음을 전하는 카드나 편지를 보내세요. 훈계하는 말은 사용하지 말고 부모가 자랑스럽게 느꼈던 순간과 걱정했던 마음에 대해 적어 보세요.

## 만약 아이의 친부모가 아니라면 ~~~~

누구에게나 부모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붓부모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특별히 혈육과 의붓자식이 섞여 있을 때는 더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의붓부모가 되는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 **부모 먼저 시작하기**

부모 자신의 감정, 신체, 정신적 건강, 행복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스스로 좋은 감정을 가진다면 의붓자식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 **있는 그대로 가정을 수용하기**

같은 혈육인 가정과 같이 의붓가족을 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입니다.

- **큰 목표에 집중하기**

단단한 신뢰감을 쌓아 보세요. 가정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기**

처지가 비슷한 친구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서로 배울 만한 것들을 나누어 보세요.

- **전 배우자 만나기**

가능한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협력을 얻어 보세요. 보호자들 간의 부드러운 관계는 자녀 양육에 큰 이득이 됩니다.

## 5. 자녀의 가출이 만성화되었을 때

**경숙이 엄마 이야기 ❹**

**'경숙이는 또 다시 집을 나갔고, 나는 너무 지쳤습니다.'**

경숙이가 또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 가출을 한 후 돌아왔을 때에는 우리나 아이나 모두 많이 힘들었고, 아이도 우리도 아이가 돌아왔을 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조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학교가 힘들었는지, 학교에서 늘 지적을 당하고 번번이 반성문을 쓰거나 심지어 정학을 연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12시가 넘기기가 일쑤고 아이 아빠는 이러한 모든 일이 너무 화가 나서 아이 버릇을 고치겠다며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번 정학사건 때에 아이 아빠는 말대답을 또박또박하는 아이에게 너무 화가 나서 얼떨결에 옆에 있는 골프채로 아이를 내리치게 되었고, 아이는 그 길로 집을 또 나가 보름만에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2번이나 더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가출이고 아이가 집을 나간지 20일이 다 되어갑니다. 이제는 나도, 경숙이 아빠도 지쳤고, 학교 선생님도 전화를 하셔서 결국 휴학을 하겠냐고 전화를 하셨고, 아이는 역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친구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막막하고, 무력하기만 할뿐 이제는 무엇을 어찌해볼 힘도, 어찌해볼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올해 벌써 네 번째 가출했다가 돌아왔다면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자녀의 행동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가족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부모도 더 이상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공포감을 주지도 않으며, 그저 자녀가 집에서 지내던지 혹은 밖에서 지내던지 일상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1) 부모와 자녀의 감정과 경험

#### (1) 부모의 감정

● 무감각

가출과 귀가가 반복되면서 부모는 차츰 무감각해집니다. 자녀가 차츰 그저 집을 들락날락하는 하숙생 혹은 남처럼 여겨지기 시작하고, 하숙생과의 차이는 단지 돈을 받지 않고 조금 더 부모에게 친근하게 구는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 죄책감 및 분노의 반복

이러한 가족의 문제가 부모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때로는 너무 소리를 많이 치고, 비난을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기도 하며 어떤 때는 처음부터 무례하고, 기질적으로 어려웠던 자녀의 탓으로 돌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모-자녀의 문제는 단지 한쪽만의 문제는 아니며 양쪽모두, 혹은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 (2) 자녀의 경험

● 무감각,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희망

부모가 무감각해지는 것처럼 자녀도 무감각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가출을 했다가 여전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그저 배가 고프고, 혹은 힘이 들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비록 방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에서 부모의 심한 체벌과 학대를 경험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가정의 안락감 대 부모로부터의 고통 간의 갈등

가출한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가출했던 자녀는 아마도 충분히 먹지고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가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2) 이 시기의 부모의 대처 전략

만약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가 지속되고 계속된 악순환이 있다면 뭔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이미 해왔고, 때로는 외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았음에도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즉, 자녀가 집에 머물면서 서로에게 심하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고, 그리고 자기마음대로 다시 들어와서 또다시 상처를 주는 패턴을 반복한다면, 그래서 부모와 다른 가족의 삶도 매우 고통스럽다면, 이제는 뭔가 새로운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자녀가 없는 다른 친척집에 일시적으로 머물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자녀들을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때로는 다른 곳에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 가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키우기 위한 부모지침 〈4〉

### 자녀의 목표를 함께 세우고 기대갖기

-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다양한지 자녀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도록 돕습니다.

- 자녀들이 자신의 선택이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일이나 학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위험한 활동에 쉽게 빠져들지 않습니다.

-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지금 배우는 교육이 미래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합니다.

- 학교에서의 실패는 많은 경우 다른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자녀는 물론 담임 교사와 즉시 대화를 나눕니다.

- 자녀의 학교에 적극 참여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가 초등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학부모회 또는 기타 부모 모임에 참여합니다. 일일 교사, 명예교사, 멘토 등으로 자원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초청의 날, 발표회, 연극, 밴드나 합창 공연, 운동 시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부모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기준세우기

• **규칙을 어기는 행동 및 나쁜 행동에 대한 규율과 지침을 세우기.**

규칙 위반과 나쁜 행동을 규제하고 이에 대한 지침을 세우는 것은 자녀가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배우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공정한 보상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계획 세우기 : 서로의 기대를 알아보세요.**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자녀에게 바라는 행동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기대하는 행동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세요.

• **명확히 하기 : 서로의 기대에 대해 명확히 하세요.**

부모가 기대하는 것을 자녀에게 명확히 알려주세요. 이때 기대하는 것을 자녀와 함께 토론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왜 그러한 규칙을 정하게 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시켜주세요.

• **확고하지만 융통성 있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주세요.**

나쁜 행동에 대해 이번 주에 처벌하고 다음 주에 넘어가는 식의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러한 행동은 자녀에게 혼란만 안겨 줍니다. 자녀는 일의 심각성을 부모의 정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스스로 융통성 있고 공정하게 하세요. 때때로 자녀는 본의 아니게 혹은 선의로 규칙을 어길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전에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 **모범을 보이고 친절히 설명해 주세요.**

부모 스스로 좋은 모범이 되어 주세요. 자녀는 부모의 훈계보다는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칭찬하고 격려해주세요.**

자녀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였을 때, 칭찬과 격려로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베게 밑에 고맙다는 편지를 남겨 놓거나 귀가시간을 30분 더 늦추는 등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왜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지 기억 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6. 자녀의 재가출을 방지하기

### 1) 적절한 기대 수준

모든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의 기대를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의도하지 않게 서로의 기대를 무시하고 실망시키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부모들은 보통 자녀들이 학교에 성실히 다니고, 좋은 행동과 성적을 보이고, 적절한 시간에 귀가를 하고, 집안일을 돕고, 술과 담배를 전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과 용돈을 주고, 숙제, 공부 및 성적에 대해서는 관대하기를 바라며, 복장, 머리, 친구, 자유시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두기를 바랍니다.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부모들이 자신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쪽의 기대 간에 갈등이나 차이를 보일 때, 서로 이에 대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동의하고, 이해하고, 합의된 기대여야 하며,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결과여야 합니다. 한쪽이 지고, 한쪽이 이긴 타협은 다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조언 1. 서로에 대해 적절한 기대를 설정하기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높은 혹은 힘든 기대를 갖는다면 갈등은 계속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갖되 기대는 낮춰주세요.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서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기대를 갖어 실망하는 것보다는 부모-자녀의 관계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 조언 2.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장 중요한 가치와 기대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서로 타협을 한다.

꼭 알리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뒷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타협하는 방법'에서 이를 배워 보세요.

### 2) 서로의 욕구 확인

욕구와 기대는 서로 중첩되기도 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힘들거나 혹은 좋은 일이 있었던 날 귀가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좀 더 관심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더 믿어주고, 더 관심과 사랑을 주고, 그렇지만 주말에는 혼자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도 주말에는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밖에 나가있을 때 안전하게 있는지 알고 싶고, 그러면서도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자라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구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니?" 혹은 "나한테 더 바라는 거 없니?"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 3) 부모-자녀가 대화하는 것을 배운다.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이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으나 자녀와의 대화만이 자녀의 재가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일한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 4) 타협을 배우기 : 자녀와 타협하는 방법 6단계

다음은 효과적으로 자녀와 타협하는 방법 6단계입니다.

● 1단계. 제3자에게 타협의 중재를 부탁하세요.

논의해야할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을 타협중재자로 포함시키세요. 그 사람이 타협을 이끌어나가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게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편을 든다면 타협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심각하고 가출이 반복되는 경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자가 이러한 타협을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 2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사람의 해결방안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부모나 자녀 모두 이러한 해결방안을 함께 생각하도록 노력하세요. 만약 한쪽만 의견을 낸다면 나중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싶은 동기가 부족해집니다.

● 3단계. 적절하지 않은 해결방안은 빼버리세요.

해결방안 목록에서 적절치 않거나 모호하여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해결방안은 서로 합의하여 지워버리세요. 예를 들어, "엄마와 싸울 때마다 제주도에 사는 할머니 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이다" 등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하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지요?

● 4단계. 목록의 해결방안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하여 가장 최선의 방안 하나를 합의하세요.

가장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방안 또한 아직도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좋다. 만약 학교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들어온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11시까지 친구들과 놀다 오게 하마."

● 5단계. 정해진 방안 실행하기

서로 합의한 해결방안에 해야 할 정확한 시간과 기간, 일주일에 몇 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하세요.

● 6단계. 피드백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서로 합의했던 계획과 결과를 함께 평가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는지, 다른 선택을 다시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 5) 가출외의 다른 방법을 찾기

● 방법 1. 집안의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게 하세요.

만약 자녀가 번번이 부모와 싸우고 가출을 하는 경우라면, 가출이 아닌 집안의 안전한 어떤 장소로 가도록 약속을 하세요. 만약 자기 방으로 간다면, 그곳까지 찾아가 계속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자기 방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논쟁 끝에 자기 방에 박혀 나오지 않는 자녀 때문에 화가 나시겠지만, 이때 조금 참아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출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 방법 2. 친구집이나 친척집으로 가도록 하세요.

밤에 집을 나가게 되는 경우라면, 적어도 가깝고 안전한 친구 집이나 친척집으로 가도록 서로 약속을 해두세요. 가능하다면 잠잘 시간까지는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서로 갈등이 많고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도 집에서 잠을 자고, 같은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이후에도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방법 3. 부모가 집을 떠나 지내도록 하세요.

자녀가 집을 나가는 대신에, 자녀와 갈등이 심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잠시 집을 떠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나가있을지,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는 그동안 다시 마음을 진정시키게 되고, 결국 가출을 막게 될 수 있습니다.

● 방법 4. 호루라기 불어 싸움을 중단하세요.

가족이 이야기를 하면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며, 결국 이러한 일 끝에 가출하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세요. 서로 비난이 시작되면 가운데 놓인 호루라기를 불고 가족들이 흩어져 한 시간쯤 각자 떨어져 있으세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모여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 선택 5. 외부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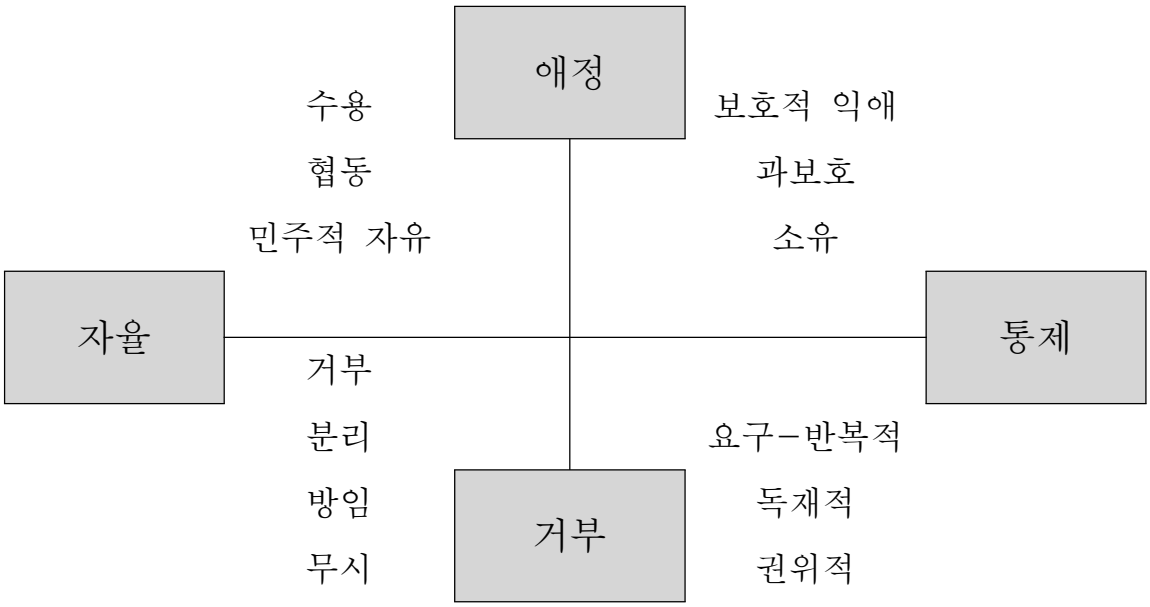
갈등 끝에 가출을 하는 자녀를 둔 경우, 자녀가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기지원체계를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지원체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무비판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상담자나 심리치료사도 이러한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시켜서, 자녀가 힘들 때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7. 자녀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자녀의 가출을 예방하기

자녀양육태도 유형을 알아보고 질문지에 통하여 부모님의 자녀양육태도를 알아본 후 각 유형에 따라 부모가 지켜야 할 의사소통방법을 알아봅시다.

### 1) 자녀양육태도란?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녀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녀의 성격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가 성장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양육태도란 자신이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 자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로 나타납니다. 자녀양육태도의 유형은 **애정적 - 자율형 , 애정적 -통제형 , 거부적 - 자율형, 거부적-통제형**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태도 질문지를 통하여 부모님께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봅시다.



☆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흔히 보이는 태도들입니다. 영역별로 체크(✓)해 보세요.

### ❑ 애 정 형

| | |
|---|---|
| 자녀의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 |
| 자녀가 똑똑한 것 같다 | |
| 자녀의 인품이나 정서적 특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
| 자녀와 떨어져 있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다 | |
| 자녀에게 가족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권유하는 편이다 | |
|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자주 살펴본다 | |
|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 자녀가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질 수 있게 하여 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 |
| 자녀가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란다 | |
|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고 있어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
| ✓표 개수 | 개 |

### ❑ 거 부 형

| | |
|---|---|
| 자녀를 양육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심, 걱정이 많이 생긴다 | |
|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 보다는 부담이 될 때가 더 많다 | |
| 자녀양육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문가에게 의논하고 싶을 때가 많다 | |
| 자녀양육에서 발생하는 일에 관해 부모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
| 의도적으로 또는 모르고 자녀들이 친구들과 사귀는 것을 제한한 적이 많다 | |
| 자녀로 인해 혼란스럽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 |
|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 |
| 자녀의 성격, 특성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 |
| 자녀가 어렸을 때 혼자 두고 집을 비우는 일이 있었다 | |
|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는 편이다 | |
| ✓표 개수 |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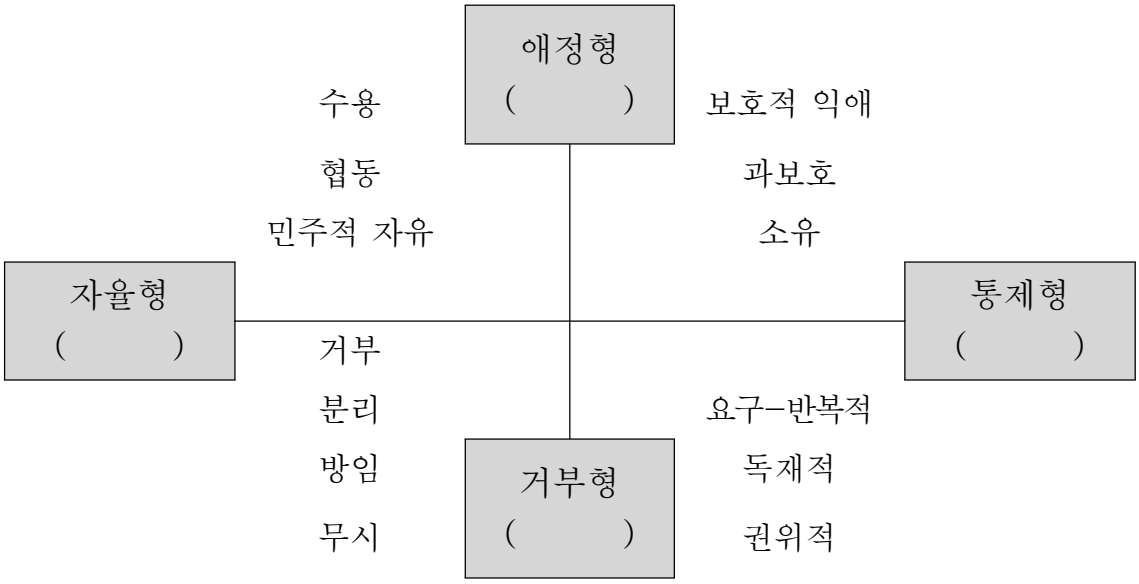
### ❑ 자 율 형

| | |
|---|---|
|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용의가 있다 | |
| 자녀가 다른 친구 또는 어른과 잘 사귄다고 생각한다 | |
|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끄집어 내지 않는 편이다 | |
|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는 편이다 | |
|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편이다 | |
|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녀의 입장을 생각하는 편이다 | |
|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 |
| 자녀 혼자 무엇인가를 할 때 그냥 두는 편이다 | |
| 자녀들끼리의 연령차이 또는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 않는 편이다 | |
| 자녀가 보이는 흥미, 관심거리에 대해서 자녀와 이야기를 자주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
| ✓표 개수 | 개 |

### ❑ 통 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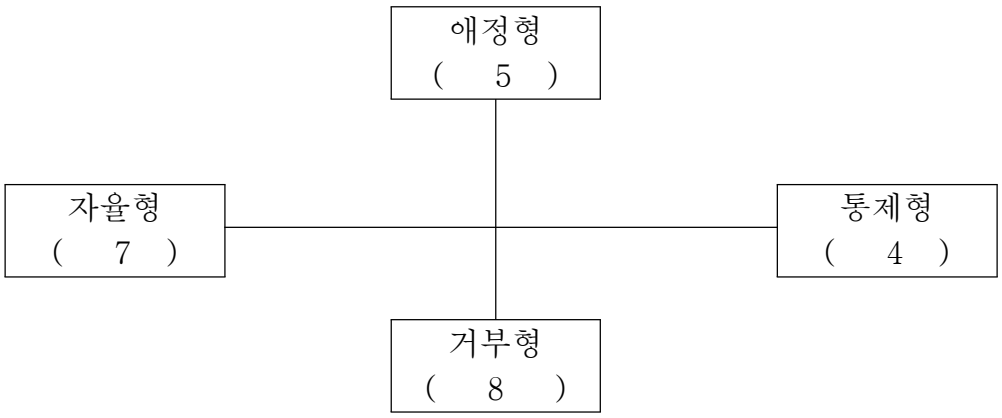
| | |
|---|---|
| 자녀가 공부할 때 되도록 집안에서 하도록 하는 편이다 | |
| 자녀가 다른사람과 친한 것 보다는 부모님과 친하기를 바라는 편이다 | |
| 자녀가 잘 정돈하고 청결하며 용모 단정하기를 바란다 | |
| 자녀가 지금 해낼 수 있는 것 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서 남보다 앞서 가기를 기대한다 | |
| 자녀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아니면 다른 사회적 활동은 되도록 피하도록 하는 편이다 | |
|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 |
| 일단 정해진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 |
| 자녀가 쓸데없이 고집을 부릴 때는 그 고집을 억지로라도 꺾고 부모 말을 듣게 해야 한다 | |
|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할 때만 자녀를 칭찬해 준다 | |
| ✓표 개수 | 개 |

☆ 자신이 체크한 개수를 적어보세요.




**☆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이 체크되었나요?**

애정형-거부형 중 체크가 많이 된 유형과 자율형-통제형 중 체크가 많이 된 유형이 바로 자신의 "자녀양육태도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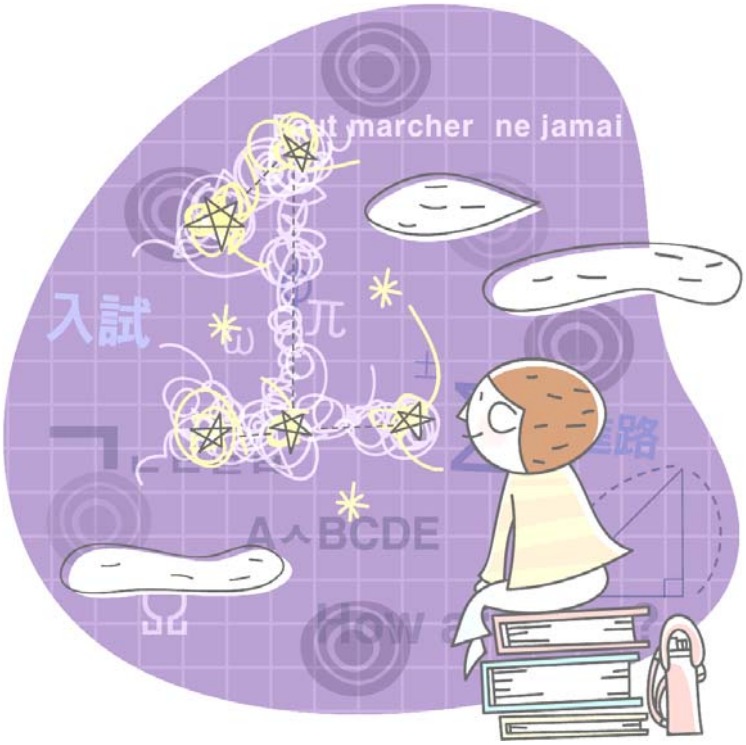



위의 경우처럼 애정형-거부형 중 거부형이 애정형보다 높게 나오고, 자율형-통제형 중 자율형이 통제형보다 높게 나왔다면 자신은 거부적-자율형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양육태도유형에 따른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

#### (1) 부모가 '거부-통제형'인 경우, 자녀는 탈출형, 도피형 가출을 하기 쉽습니다.

이는 자녀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정이 없고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독재형 양육태도로서 자녀로 하여금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적대감정을 유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 양육된 아동은 반항적이며 자기 방어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공격적,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학적이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정신질환현상을 보일수도 있습니다.



## 잠깐만! 거부-통제형 부모의 자녀양육 tip

### '자녀의 속마음을 알아주고 비난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녀의 속마음(욕구)을 알아 보세요

자녀의 질문이나 이야기에 반응할 때에는 그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는 이면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녀의 감정에 적합한 반응을 해야합니다.

•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알도록 도와 주세요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알게 해줄 수 있습니다.

• 화날 때 비난 하지 마세요

자녀를 인신공격하지 말고 부모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해야 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교복치마를 짧게 수선하여 입는 경우 엄마는 네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교복치마를 너무 짧게 입으면 불량스러운 학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질까 걱정이 되는구나 라고 부모님이 걱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 판단을 미루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 해 주세요

음 , 아 혹은 그렇구나 와 같은 말이나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판단적인 말을 피하세요. 예를 들어 만일 자녀가 집에 돌아와 선생님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면 부모는 음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말은 자녀에게 기회를 주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설명할 시간을 더 주게 됩니다. 부모가 공명판이 되면 자녀는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 자녀와 신뢰 구축의 기회를 갖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더 이상 신뢰를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무력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궁지에 몰린 느낌 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래서 깊은 분노와 고통이 찾아와 매일의 상호작용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갑니다. 신뢰가 없는 경우 자녀들은 거짓말쟁이 , 멍청이 , 무책임한 녀석 , 혹은 도둑놈 같이 불러지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 (2) 부모가 '거부-자율형'인 경우, 자녀는 시위형, 유희추구형 가출을 하기 쉽습니다.

이는 방임형 양육태도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로 심리적 거리감 조성, 무관심, 태만한 성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는 공격적이고 행동 조절이 어렵고 정서가 불안하며 소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잠깐만! 거부-자율형 부모의 자녀양육 tip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준 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 합니다'

• 바쁘더라도 자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세요

부모가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들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 문제를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문제를 말할 때는 TV를 꺼야 하고 부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어 들어줘야 합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비난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상처를 마음 속 깊이 남깁니다. 육체적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으나 쓰라린 말들은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 달라붙어 있으며 때로는 결코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자신을 낙오자로 보며 시도하는 것조차 그만두게 됩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고 현재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 합니다.

•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말을 들을 때 깊은 위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감정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비난하기 이전에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진정으로 자신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감정과 상처를 솔직하게 표현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 (3) 부모가 '애정-통제형'이라면, 자녀는 탐험형, 시위형 가출이 되기 쉽습니다.

이 유형은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안함으로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위축시킵니다. 부모에 의한 통제는 신체적인 체벌에서부터 언어적인 통제 및 심리적인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영역에 속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애정적 - 자율적인 양육태도에서 자란 자녀보다 더욱 의존적이며, 사교성, 창의성에서 뒤쳐지게 됩니다.

#### 잠깐만! 애정-통제형 부모의 자녀양육 tip

'자녀가 스스로 자율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 자녀가 가진 흥미를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자녀가 실패를 하더라도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줍니다.
-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듯이 자녀들도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원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어떤 목표를 갖도록 안내하되 조급하게 다그치거나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줍니다.
- 작은 결정이라도 자녀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만약 그 결정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녀의 결정에 격려와 지지를 해줍니다.

### (4) 부모가 '애정-자율형'이라면, 자녀는 도피형, 유희추구형 가출을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와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고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합니다.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만 방임하지 않으며 자유와 함께 책임을 지게하고, 복종과 통제를 피하면서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경우 자녀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 밖에서는 잘 적응하는 이러한 자녀일지라도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과 고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 *가출한 아이들 중에는 "가정에서의 불화" 때문에 집을 나왔다는 아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은 청소년 가출이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은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 8. 가출한 자녀를 찾는 방법

## 1)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센터

### (1) 설립목적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 및 치매노인의 신고 접수, 조회 및 전산 입력 등 실종아동을 찾는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2) 업무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아동 등, 치매노인의 찾는 신고와 보호 신고 전화로 일원화하여 24시간 신고접수 및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3) 경찰청 실종아동 중 가출의 정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4세 이상의 자로서, 보호자가 찾고 있는 14세 이상에서 20세 미만의 자를 “가출청소년”이라 하고, 보호자가 찾고 있는 20세 이상의 자를 “가출성인”이라 말합니다.

### (4) 신고절차

①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에 신고방법

1단계 : 국번 없이 182번으로 전화합니다.

2단계 : 가까운 경찰서에 자녀의 사진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방문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② 실종아동 찾기센터 홈페이지(http://www.182.go.kr) 신고방법

1단계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실종아동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이동한 후

3단계 : 입력항목을 자세히 입력합니다.

- 아이에 대한 정보는 사소한 것이라도 상세히 입력
- 아이의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 중 선명한 것을 선택하여 파일을 첨부

4단계 :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기억해 둡니다.

◉ 신고요령

- 정상실종아동/장애실종아동(14세미만, 정신지체, 치매 등) 보호시

- 정확한 자녀의 이름과 나이,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름을 말할 수 있는지 등을 해당 경찰서에 알려줍니다.
- 가출한 날짜와 시간, 위치, 마지막까지 자녀를 보았던 장소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가출은 누구와 함께 했는지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 가장 최근에 찍은 자녀의 사진 제출합니다.
- 평소의 옷차림과 신발 소품, 그리고 신체 특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연결이 가능한 연락처를 여러 개 알려 둡니다.

## 2) 통신사 이동전화 위치 추적

### (1) 가출청소년 이동전화 위치 추적

이동전화 위치 추적은 해당 가출청소년 명의로 된 이동전화일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인이 직접 통신사의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단, 수사상의 목적으로 경찰의 협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상담 필요)를 얻어 이동전화의 위치 추적은 가능하며 소방본부 이동전화 위치추적은 구조, 구급 등 긴급구조사항에 한정되어 있으며 단순 가출은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부모나 형제 명의로 된 이동전화를 가지고 가출했을 경우 해당 명의자가 이동통신사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핸드폰 위치를 추적 가능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개정 2005.5.26>)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가출시 이용시설 이용방법 및 정보안내

### 1) 청소년전화 1388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과 관련된 **대인관계, 진로상담, 긴급구조, 정보제공** 등에 대한 청소년전화입니다.

(1) 헬프콜! 1388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은 물론,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웃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헬프콜! 1388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의 대인관계, 진로상담 등 고민과 애로사항이 있을 때
- 청소년이 폭력, 가출, 학대 등 위험에 처했을 때
- 유해환경 신고가 필요할 때
- 기타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전화이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참여활동 등에 대해서도 정보제공 및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3) 헬프콜! 1388은 몇 시까지 운영 되나요?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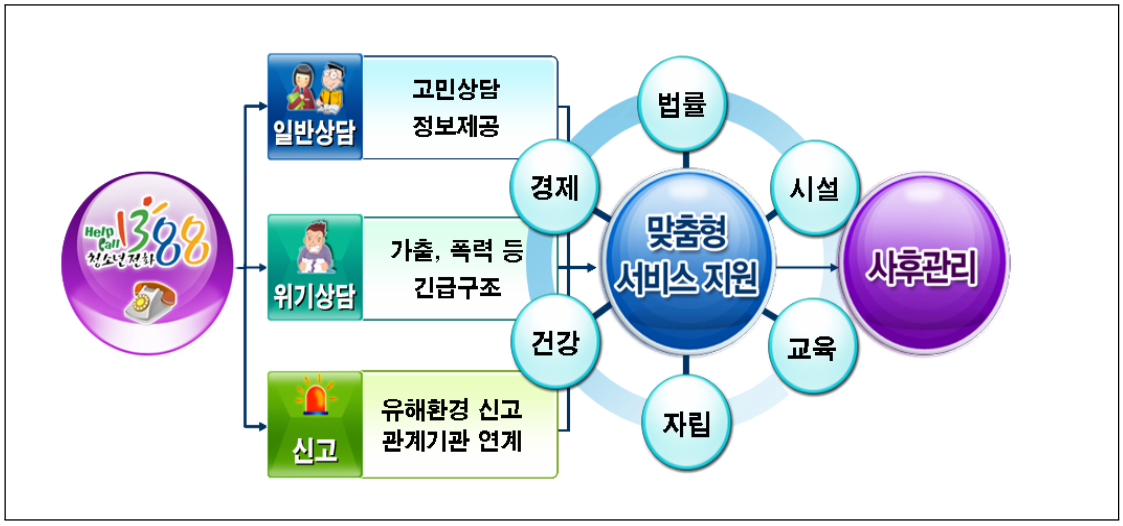
(4) 헬프콜! 1388은 누가 전화를 받나요?

전국 146개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청소년상담사가 전화를 받습니다.

(5) 헬프콜! 1388은 어떻게 도와 주나요?

- 청소년전화 1388은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의 관문으로써 전국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정부기관, 경찰, 학교, 병원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청소년이 처한 문제를 원인 진단부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립니다.
- 휴대전화 #1388을 통해 무료로 문자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388 서비스 지원모형 ]




## 2) 청소년쉼터

(1) 청소년쉼터가 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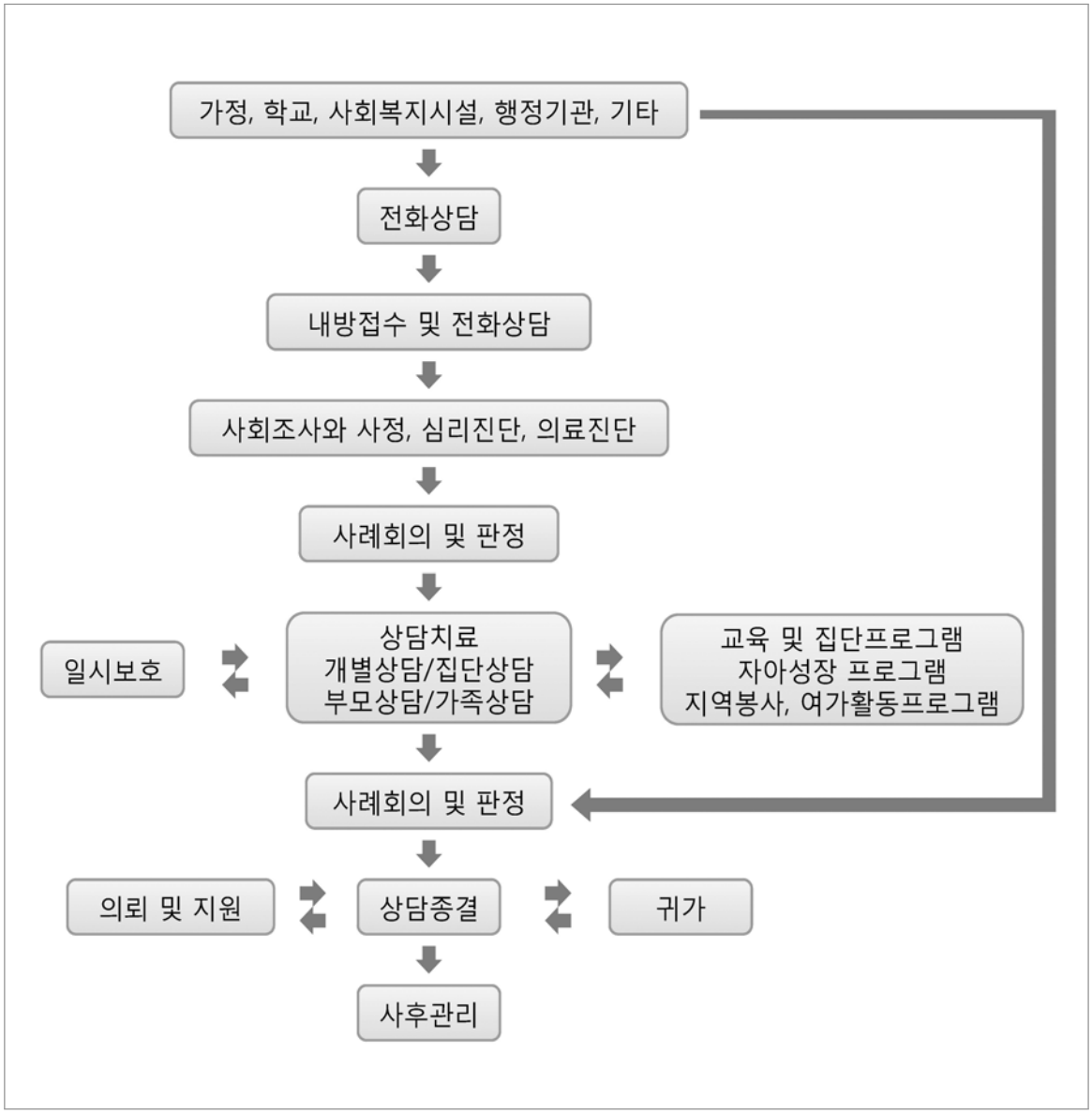
- 일시보호활동 : 무료숙식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심리검사 / 생활지도
- 상담 프로그램 :
  - 내용 : 가출 및 이성교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학교부적응 등
  - 방법 : 전화, 서신, 면접상담, 개인 및 집단상담
  - 대상 : 가출 청소년 및 학부모, 일반청소년, 교사
- 조사연구활동 : 청소년가출 실태조사연구 등
- 기타활동 : 청소년문제 예방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등

(2) 이용하는 방법

가출했을 때 : 가출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청소년쉼터로 찾아오면 무료로 숙식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상담을 하려면 :
  - 면접상담 및 면접상담 : 24시간 이용가능
  - 상담전화 :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 학교 위탁 및 지원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 가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쉼터로 상담을 위탁하면 정기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가출을 예방하며 가출의 위험이 있거나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집단상담을 실시하는 지원상담프로그램도 실시합니다.
- 기타 : 부모 교육프로그램, 자원지도자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가출청소년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Out-Reach Program)을 실시합니다. 전화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3) 가출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흐름도



## 3) 가출시 이용시설 연락처

### (1) 가출청소년 쉼터

| 지역 | 기관명 | 유형 | 보호 성별 | 전화번호 | 주 소 |
|---|---|---|---|---|---|
| 서울 | 노원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2-3391-2662 |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93-28 |
| | 서울시립이동 청소년쉼터 | 일시 | 남/여 | 010-4537-2409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8 |
| | 서울시립신림중기생활 전환쉼터 | 중장기 | 남 | 02-3281-7942 | 서울 관악구 신림13동 646-222 |
| | 서울시립신림 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2-876-7942 |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28-12 |
| | 성심디딤돌 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2-2688-1318 | 서울 구로구 온수동 86-15번지 |
| | 강남구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2-512-7942 |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29-11 |
| | 강서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2-2697-7377 | 서울 강서구 화곡5동 83-23 3층 |
| | 서울시립금천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2-3281-8200 |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58 |
| | 나우리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2-832-5767 |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 1118-3 |
| | 어울림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2-302-9006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674-19 3층 |
| | 서울일시 청소년쉼터 | 일시 | 남/여 | 02-718-1318 | 서울용산구서계동 243-12 |
| | 안젤라의집 | 중장기 | 여 | 02-916-8778 | 서울 성북구 장위1동 233-449 |
| 부산 | 부산드롭인센터 | 일시 | 남/여 | 051-303-9679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2동 247-6 |
| | 부산광역시 청소년남자쉼터 | 단기 | 남 | 051-303-9672 |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47-6 |
| | 부산광역시 청소년여자쉼터 | 단기 | 여 | 051-756-0924 | 부산 수영구 민락동 165-7번지 |
| | 부산 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 | 051-581-1388 | 부산 금정구 남산동 335-16 |
| 대구 | 대구광역시중장기 여자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53-426-2276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 4가 526-3 |
| | 대구광역시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53-659-6290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83-1 |
| | 달서구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53-526-1318 | 대구 달서구 본동 789-2 |

| 지역 | 기관명 | 유형 | 보호 성별 | 전화번호 | 주 소 |
|---|---|---|---|---|---|
| 인천 | 인천시 청소년여자쉼터 | 단기 | 여 | 032-468-1318 |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4-16 |
| | 인천광역시 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32-438-1318 | 인천 남구 주안2동 547-5호 |
| | 인천시 청소년여자쉼터 | 중장기 | 여 | 032-465-1393 | 인천 남동구 만수5동 886-44 |
| | 인천시 청소년 남자쉼터 | 중장기 | 남 | 032-875-7718 | 인천 남구 숭의4동 2-59 |
| | 인천드롭인센터 | 일시 | 남/여 | 032-516-1318 |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39-8 |
| 광주 | 광주광역시 일시청소년쉼터 | 일시 | 남/여 | 062-369-1388 | 광주 남구 월산4동 973-10 |
| | 광주광역시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62-525-1318 | 광주 북구 유동 107-5번지 광주YWCA건물 5층 청소년쉼터 |
| | 광주광역시남자 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62-227-1387 | 광주 동구 서석동 42-7 청소년쉼터 어깨동무 |
| | 광주여자 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 | 062-366-1318 | 광주 동구 소태동 449 |
| 대전 | 대전중장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42-534-0179 | 대전 서구 갈마동 1275 |
| | 대전드롭인 (이동)쉼터 | 일시 | 남/여 | 042-221-1092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87-6 |
| | 대전청소년남자쉼터 | 단기 | 남 | 042-223-7179 | 대전 중구 은행동 142-6 |
| | 대전이동 청소년쉼터(설치형) | 일시 | 남/여 | 042-673-1092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40-5 |
| | 대전청소년여자쉼터 | 단기 | 여 | 042-256-7942 | 대전 중구 은행동 142-6 보육정보센터4층 |
| 울산 | 울산사과나무 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52-261-1388 | 울산 북구 연암동 359-4 |
| | 울산남구꿈나눔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52-269-1388 | 울산 남구 신정1동 644-2 |
| | 울산광역시 중장기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 | 052-223-5186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269 |
| 경기 |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 일시 | 남/여 | 031-591-1319 |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651-10 |

| 지역 | 기관명 | 유형 | 보호 성별 | 전화번호 | 주 소 |
|---|---|---|---|---|---|
| 경기 | 의정부시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31-829-1318 |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98 |
| | 안양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 일시 | 남/여 | 031-464-1388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98 |
| | 군포시청소년쉼터 하나로 | 중장기 | 남 | 031-399-7997 |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75-61 |
| | 성남새날을여는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31-758-1213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43 |
| | 고양 열린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31-918-1366 |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498-7 |
| | 안양시청소년쉼터 FORYOU | 단기 | 남/여 | 031-455-9182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32-2 |
| | 용인푸른꿈 청소년쉼터 | 단기 | 남/여 | 031-276-077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570-1 |
| | 안산시청소년쉼터 자유세대 | 단기 | 남/여 | 031-501-2542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51-12 |
| | 안산시청소년쉼터한신 | 단기 | 여 | 031-485-0079 | 경기 안산시 월피동 500-2번지 |
| | 의정부시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31-837-1318 | 경기 의정부시 가능1동 374-4 십대지기청소년비전센타 3-4층 |
| | 수원청소년쉼터 | 단기 | 남/여 | 031-232-4866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전원아파트 B동 상가 2층 |
| | 평택시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31-652-1384 | 경기 평택시 비전동 825-15 |
| | 부천시모퉁이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32-343-1880 | 부천시 원미구 역곡 1동 |
| | 용인여자쉼터 | 중장기 | 여 | 031-264-7733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570-1 |
| | 시흥쉼터 | 단기 | 여 | 031-319-3022 | 시흥시 정왕동 2305-14 우정빌딩 |
| 강원 | 루치아쉼터 (중장기여자쉼터) | 중장기 | 여 | 033-735-1320 | 강원 원주시 학성동 1023-76 |
| | 보금자리 (중장기남자쉼터) | 중장기 | 남 | 033-244-5118 | 강원 춘천시 우두동 329-36 |
| | 춘천YMCA강원도청소년쉼터(여자) | 단기 | 여 | 033-261-1006 | 강원 춘천시 후평1동 849-6 춘천YMCA 3층 |
| | 춘천YMCA강원도청소년쉼터(남자) | 단기 | 남 | 033-255-1002 | 강원 춘천시 후평1동 849-6 춘천YMCA 4층 |
| 충북 | 충청북도 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 | 043-266-2204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587번지 주은빌라 3층 |

| 지역 | 기관명 | 유형 | 보호 성별 | 전화번호 | 주 소 |
|---|---|---|---|---|---|
| 충북 | 청주참사랑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43-271-131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41-30 |
| | 청주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43-231-2676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085 |
| 충남 | 천안청소년중장기 남자쉼터 | 중장기 | 남 | 041-576-1389 | 충남 천안시 성정동 796 |
| | 천안청소년 단기남자쉼터 | 단기 | 남 | 041-576-1389 | 충남 천안시 성정동 695-5 |
| | 천안청소년 단기여자쉼터 | 단기 | 여 | 041-578-1388 | 충남 천안시 성정동 697-22 |
| 전북 | 임마누엘 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 | 063-244-1774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55-2 |
| | 전주푸른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63-252-109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2가 66-15 |
| 전남 | 목포유달 청소년쉼터(여자) | 단기 | 여 | 061-282-0201 | 전남 목포시 상동 978-1 |
| | 목포유달 청소년쉼터(남자) | 단기 | 남 | 061-282-0201 | 전남 목포시 상동 978-1 |
| | 여수시중장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61-661-0924<br>061-654-2160 | 전남 여수시 충무동 474 |
| 경북 | 경상북도(희망의샘)청 소년쉼터 | 단기 | 여 | 054-857-6137 | 경북 안동시 옥정동 1번지 |
| | 구미시청소년쉼터 느티나무 | 단기 | 여 | 054-444-1388 | 경북 구미시 원평동 438-3 번지 |
| | 포항시중장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여 | 054-244-1318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38-6번지 |
| 경남 | 마야중장기 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 | 055-274-0924 | 경남 창원시 사파동 54-1번지 |
| | 김해YMCA 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55-332-1318 | 경남 김해시 봉황동 404번지 5층 |
| | 하라단기청소년쉼터 | 단기 | 남 | 055-237-1318 | 경남 창원시 도계동 320-5 |
| 제주 | 온누리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 | 064-733-1376 |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512-14 |
| | 성지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 | 064-759-1388 | 제주시 이도2동 1022-13 |
| | 제주청소년쉼터 | 단기 | 여 | 064-751-1388 | 제주 제주시 건입동 1274-8(3층) |

## | 참고문헌 |


김향초(2001).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김향초(2009). 가출청소년의 이해와 상담. 학지사.

유선경 외(2000). 청소년의 가출. 한국청소년상담원.

이창호 외(2007). 위기개입 실무자를 위한 긴급구조 매뉴얼.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집나가는 아이들. 청소년 가출·재가출 예방 부모용 지침서.

Kipke, Simon, Montgomery, Unger & Iverson(1997). Whitbeck, Hoyt, & Ackley,

Slenick N. (2004). Our Runaway and Homeless Youth : a Guide to Understanding, Westport, CT; Praeger Piblisher. National Runaway Switchboad. http://www.nrscrisisline.org/

# | 부 록 |

## I.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2009.3)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 한국청소년상담원 | 02-730-2000 |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292-61 |
| 서울 | 서울특별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2-2285-1318 |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
| |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 02-2226-7667 /<br>1388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9 |
| |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 | 02-993-1388 | 서울시 강북구 419길 224 |
| |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 02-803-1873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산84-7 |
| |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 02-3391-0079 |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2 |
| |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 02-950-9643~4 /<br>1388 |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6 |
| | 마포구청소년지원센터 | 02-3153-5976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8-1 |
| |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 02-335-5880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67-1 |
| | 서초구청소년지원센터 | 02-586-9128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31-4<br>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내 |
| |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 02-2296-3744 |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br>서울특별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 | 양천구청소년지원센터 | 02-2646-8341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 |
| | 영등포구청소년지원센터 | 02-2676-6114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9-1<br>코오롱주상빌딩 2층 상담실 |
| |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br>청소년지원센터 | 02-496-1895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82-10 |
| 부산 | 부산광역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51-804-5001~2,<br>5010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6-4 |
| | 부산광역시<br>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51-303-9675~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
| | 금정구청소년지원센터 | 051-581-2072 /<br>1388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62<br>금정청소년수련관내 |
| | 북구청소년지원센터 | 051-334-3000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7(구포1동<br>610-1)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부산 | 영도구청소년지원센터 | 051-405-5224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산 149-4 |
| | 진구청소년지원센터 | 051-868-095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
| 대구 | 대구광역시<br>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53-659-6240 |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83-1<br>(약령5길 136) |
| |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 | 053-638-1388 |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3동1593-6 |
| 인천 | 인천광역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2-1388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6-6 |
| | 계양구청소년지원센터 | 032-547-0855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183<br>(방축동 214) |
| | 연수구청소년지원센터 | 032-810-730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
| 광주 | 광주광역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62-1388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 |
| 대전 | 대전광역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42-1388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br>1-13(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
| | 대전광역시<br>서구청소년지원센터 | 042-527-3112 |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6-22<br>서부새마을금고 |
| 울산 | 울산광역시<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52-227-2000 |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26-4번지<br>알리안츠빌딩 |
| | 동구청소년지원센터 | 052-233-5279 |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49<br>남목청소년문화의집 |
| | 북구청소년지원센터 | 052-283-1388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 |
| 경기 | 경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1-248-1318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br>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관 |
| |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 031-582-2000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16<br>여성회관 3층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
| | 고양시청소년지원센터 | 031-970-4002 | 경기도 덕양구 토당동 3-39 |
| |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31-502-1318 |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99번지<br>청소년수련관내 |
| |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 02-809-2000 |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2-4 우성빌딩 |
| |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31-760-2219 |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7-27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경기 |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 031-557-2000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3-4<br>구리시청소년수련관 내 |
| |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 031-398-1277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3<br>(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내) |
| | 김포시청소년지원센터 | 031-985-1387,<br>984-1388 | 경기도 김포시 시청앞길 19<br>(사우동 259-4호) 시민회관 |
| | 남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31-590-8097~8 |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경춘로 202<br>남양주시청제2청사 |
| | 동두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31-865-2000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86-2 |
| |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32-325-9557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br>복사골문화센터 301,302호 |
| |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 031-756-1388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br>240번지 중원청소년수련관내 |
| | 수원시청소년지원센터 | 031-218-0446,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34-1<br>수원청소년문화센터B1층(본소)<br>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br>28-7장안청소년문화의집2층(분소) |
| | 시흥시청소년지원센터 | 031-318-7101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1-2<br>시흥시청소년수련관 내 |
| |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31-487-1316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3 |
| | 안성시청소년지원센터 | 031-676-1318 |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403-5<br>그루터기 문화의집 |
| |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 | 031-446-0242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98<br>냉천놀이터 내 |
| |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31-858-1318 | 경기도 양주히 화합로 1371번길 11<br>양주시립 덕정도서관 4층(덕정동 151-53) |
| | 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 | 031-775-1318 /<br>1388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7-3<br>군립도서관 내 |
| | 여주군청소년지원센터 | 031-882-8889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
| | 연천군청소년지원센터 | 031-832-4452,<br>833-1388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83 |
| |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31-372-4004 | 경기도 오산시 궐동 653-5 태성빌딩 |
| |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 031-322-9300~2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br>청소년수련관 내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경기 | 의왕시청소년지원센터 | 031-452-1388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9 |
| |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 | 031-872-138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2번지 청소년회관 |
| | 이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31-634-2777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39번지 다목적복지회관 |
| |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31-945-7885(금촌)<br>031-949-7915(교하) |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0-1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
| | 평택시청소년지원센터 | 031-656-8442 |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92 |
| | 포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31-533-1318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1 |
| | 하남시청소년지원센터 | 031-790-6680 |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 하남시청 지층 청소년상담실 |
| |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 031-225-0924, 1318 |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34 유앤아이센터 |
| 강원 |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33-256-2000 |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78-6 |
| | 강릉시청소년지원센터 | 033-646-8666 | 강원도 강릉시 교동2-21 종합운동장길 66 강릉시청소년수련관 |
| | 속초시청소년지원센터 | 033-638-1388 |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180 속초시청소년수련관 |
| |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 | 033-375-1318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246 |
| | 원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33-734-1388,<br>744-0924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9 |
| |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 033-452-2000 |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220 |
| 충북 |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43-258-2000 /<br>1388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도청제2별관 |
| | 제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43-642-7949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436 보건복지센터(청전동 110번지) |
| |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43-261-077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6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
| |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43-842-2007 | 충북 충주시 호암동 562 |
| 충남 |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 041-554-200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3-4 |
| |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 | 042-841-0343 |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71-7 |
| |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41-858-1318 | 충남 공주시 웅진동 433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충남 |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 041-751-2007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금산다락원 청소년의 집 |
| |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41-736-2041 | 충남 논산시 지산동 785번지 논산시청소년수련관 내 |
| |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 | 041-357-2000 |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252-1 |
| |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 041-936-5710 |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22번지 청소년문화의집 |
| | 부여군청소년지원센터 | 041-836-1898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
| |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41-669-200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49(동문동 804-8) 서산시2청사 |
| | 서천군청소년지원센터 | 041-953-4040, 9799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92-3 |
| |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41- 532- 2000 |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45-31 3층 온천2동노인복지회관 |
| |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 | 041-867-2000 |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420 |
| | 예산군청소년지원센터 | 041-335-5700 |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예산문화원 |
| |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 041-622-1388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번지 여성회관 두정분관 |
| | 청양군청소년지원센터 | 041-944-1024 |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복지회관 |
| |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 041-674-2800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205 |
| |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 041-634-4858 | 충남 홍성군 호성읍 옥암리 1084 |
| 전북 |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63-276-6291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6-1 상운빌딩 |
| | 고창군청소년지원센터 | 063-563-6792~3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고창청소년 수련관 |
| |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63-468-2870 | 전북 군산시 송풍동 954-3 |
| | 김제시청소년지원센터 | 063-545-0112 | 전북 김제시 검산동 산 62-1 청소년수련관 |
| |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 063-633-1977 |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1-2 남원교육문화회관내 |
| |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 063-324-6688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94-1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전북 | 부안군청소년지원센터 | 063-583-8772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85-8 수도사업소내 |
| | 순창군청소년지원센터 | 063-653-4646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233-1 |
| |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 063-291-7373 |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 청소년수련관 |
| |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63-856-2008 |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 |
| | 임실군청소년지원센터 | 063-644-2000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77 |
| | 장수군청소년지원센터 | 063-351-5161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72 한누리전당 가람관 3층 |
| |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63-236-1388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
| | 정읍시청소년지원센터 | 063-531-3000 | 전북 정읍시 연지동 39-6 구군청 본관 |
| | 진안군청소년지원센터 | 063-433-2377 |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1-11 군민자치센터 |
| 전남 | 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61-287-7504 / 1388 |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2번지 전남여성플라자 4층, 5층 |
| |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61-334-1388 | 전남 나주시 죽림동 60-172 |
| |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 061-272-2440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9 |
| | 순천군청소년지원센터 | 061-741-1308, 1309 | 전남 순천시 조례동 1329번지 우정충효회관 |
| | 여수시청소년지원센터 | 061-663-2000 |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 |
| | 장흥군청소년지원센터 | 061-863-131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2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내 |
| | 진도군청소년지원센터 | 061-544-5122 |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6-1 읍사무소 내 |
| |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 | 061-537-1318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1-2 |
| 경북 | 경상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54-853-3011~3, 3016 |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
| | 경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53-815-4106 |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경산문화원 |
| | 경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54-742-1388 |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53-231 |
| | 구미시청소년지원센터 | 054-442-1764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20-18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경북 |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54-431-2009 | 경북 김천시 다수동 204-1 |
| | 문경시청소년지원센터 | 054-556-3000 | 경북 문경시 모전동 59-2<br>문경시청소년지원센터 |
| | 상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54-535-3511 | 경북 상주시 계산동 490<br>(청소년수련관내) |
| | 영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54-634-1318 |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0-7 |
| | 영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54-338-1388 | 경북 영천시 교촌동 336-2<br>체육시설사업소 |
| | 울진군청소년지원센터 | 054-781-0079 / 1388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793 |
| | 청송군청소년지원센터 | 054-873-7626 |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04-1 |
| | 포항시청소년지원센터 | 054-252-0020 |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185번지<br>청소년수련관 내 |
| 경남 |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 055-276-0924 | 경남 창원시 삼동동 293번지<br>늘푸른전당 |
| |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 055-636-2000 | 경남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br>거제시청소년수련관2층 |
| | 거창군청소년지원센터 | 055-941-2000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
| | 고성군청소년지원센터 | 055-673-7942 |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br>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
| |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 055-325-2000 | 경남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br>김해청소년문화의집 |
| | 남해군청소년지원센터 | 055-865-5279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5번지<br>종합사회복지관 |
| | 마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55-245-7941 | 경남 마산시 팔용로 600<br>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내 |
| | 밀양시청소년지원센터 | 055-355-2000 |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9<br>밀양시청소년수련관 내 |
| | 사천시청소년지원센터 | 055-832-7942 | 경남 사천시 벌리동427-1번지<br>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내 |
| | 산청군청소년지원센터 | 055-973-8424, 3440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29-1<br>문화의 집 내 |

| 지역 | 기관명 | 상담전화 | 주소 |
|---|---|---|---|
| 경남 | 양산시청소년지원센터 | 055-372-2000 |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br>양산종합운동장112호(양산사무실)<br>경남 양산시 주진동 72-6<br>웅상문화체육센터 3층 (웅상사무실) |
| | 의령군청소년지원센터 | 055-572-2000 / 1388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43번지<br>종합사회복지관 3층 |
| | 진주시청소년지원센터 | 055-744-2000 | 경남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br>청소년수련관 내 |
| | 진해시청소년지원센터 | 055-551-2000 | 경남 진해시 풍호동 1번지<br>진해종합사회복지관내 202호 |
| | 창녕군청소년지원센터 | 055-532-2000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36-1 |
| | 창원시청소년지원센터 | 055-273-2000, 2010 / 1388 | 경남 창원시 삼동동 293번지<br>늘푸른전당 1층 104호 |
| | 통영시청소년지원센터 | 055-644-2000 |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40-5번지<br>통영시청소년수련관 내 |
| | 하동군청소년지원센터 | 055-883-3000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 |
| | 함안군청소년지원센터 | 055-583-0924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1 |
| | 함양군청소년지원센터 | 055-963-7922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
| | 합천군청소년지원센터 | 055-930-3911 | 경남 합천군.읍.리 705-5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br>청소년상담지원센터 | 064-759-9951~2 / 1388 | 제주 제주시 이도 2동 1022-13 |
| |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 1388 |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69-4<br>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 집 |